

북관(北關) 고적(古跡)에 대한 홍양호(洪良浩)의 인식과 시적 형상화

김승우*

차 례

1. 서론
2. 추존(追尊) 사조(四祖)에 대한 인식과 숭모(崇慕)
3. 태조의 고적과 이적(異蹟)에 대한 현창(顯彰)
4. 결론

| 국문초록 |

본고에서는 이계(耳溪) 홍양호(洪良浩, 1724~1802)가 경흥부사(慶興府使)로 좌천된 동안 함경도 지역에 남아 전하던 조선왕조 선조들의 고적(古跡)을 둘러보고 지은 작품을 분석하여 그가 창업의 역사를 인식한 특징적 방식을 도출해 내고자 하였다.

추존 사조(四祖)와 관련된 고적을 다루는 홍양호의 방식에서는 몇 가지 중요한 경향이 발견된다. 우선, 자신의 관점에 따라 사조의 위상을 선초와는 다른 비중으로 조정하였다는 점이다. 가령 알동(幹東)과 적지(赤池)의 고적을 다루면서 그는 익조(翼祖)의 역할을 크게 부각함으로써 익조를 왕조 창업의 핵심적 기반을 닦은 인물로 추양하였다. 또한 함흥 본궁은 본래 도조(度祖) 이래의 선왕들이 살던 집터에 지은 별궁이지만 그중에서도 유독 환조(桓祖)를 특화하여 고적과의 관련성을 드러내기도 하였다. 둘째로 고적의 현재적 의미에 주목하였다는 점이다. 홍양호는 고적을 4, 5백년 전 과거의 유산으로만 묶어 두지 않고 자신의 시대를 기준으로 그 의미를 상기하였다. 두만강 너머에 있는 알동 유적이 청의 땅이 되어 이제는 그저 바라만 볼 수밖에 없게 된 현실에 분노와 비애를 표출한 것이나, 익조가 알동을 떠나 정착했던 적도를 단순한 피난처가 아닌 천혜의 길지라고 규정하여 선초와는 다른 관점을 보였던

* 이화여자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것이 여기에 해당하는 사례이다. 셋째로, 자칫 허황되게 여겨질 수도 있는 이적이거나 신이한 체험을 적극적으로 해석한 점이다. 익조가 적도로 피난할 때 바다가 갈라져 길이 생겼다는 이야기는 선초부터 언급되었던 이적이지만 홍양호는 여러 심상과 상상을 동원하여 그 광경을 한층 장엄하게 묘사하였으며, 환조와 임영대군(臨瀛大君)을 잇달아 꿈에서 만났던 개인적 체험을 작품화하면서 북방에 남겨진 왕실 선조의 사적을 탐문하리라는 사명을 되새기기도 하였다.

한편, 태조의 고적을 다룬 작품들에서도 선초와는 변별되는 특징이 여럿 발견된다. 첫째로 문무를 겸비한 영웅으로서 태조의 위상을 규정하려 한 의도가 간취된다. 태조의 무인적 면모는 뚜렷한 반면 학문이나 유학적 식견에 관한 사적은 매우 드문 것이 사실인데, 홍양호는 태조가 소싯적 독서를 했다는 움집 터와 독서당 고적을 특화하여 태조가 지닌 문사적 자질을 부각함으로써 그를 실질적 의미의 ‘문화적 영웅’ 내지 ‘도덕적 거인’으로 묘사하고자 하였다. 둘째로 태조의 소소한 능력까지도 역사적인 맥락으로 끌어 와 연계 지었다. 예컨대 선초에는 태조의 격구 실력을 그 자체로 다루었던 데 비해서 홍양호는 격구 공과 채를 각각 여말의 급박한 정세와 이를 헤쳐 나가는 태조의 역량에 비유하였다. 격구 채로 호쾌하게 공을 때리는 모습을 그리면서 국난을 연이어 극복해 낸 태조의 실제적 업적을 칭송하였던 것이다. 셋째로 태조의 공덕이 홍양호 당대에까지 이어진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유년기부터 독서에 열중했던 태조의 문사적 기풍이 면면히 이어져 명이 망한 후에도 문명을 보존할 수 있었다고 의미를 부여하거나, 태조가 삼선(三善)·삼개(三介)의 난을 평정하고서 수복한 철령(鐵嶺) 일대에 백성들이 평화롭게 대를 이어 생업에 종사하는 모습을 감격스럽게 서술한 사례가 그러하다. 넷째로 앞서 사조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태조의 고적을 다룰 때에도 이적을 중시하였다. 특히 후대의 전란과 관련된 새로운 일화에 주목하였는데, 가령 태조가 활을 걸어 두었다는 쾌궁송을 임진왜란 때 왜군이 훼손하려 하자 선혈이 솟구치고 돌풍과 천둥이 일었다는 일화, 태조의 편장(偏將)이자 의제(義弟)인 이지란(李之蘭)의 부도가 병자년 가을에 깨지면서 청이 곧 침범하리라는 경고를 전하였다는 일화를 비중 있게 형상화하였다.

이처럼 홍양호는 조선초기의 악장과는 여러 측면에서 변별되는 방식으로 왕조 창업의 역사를 기술하였으며, 이를 위해 북관의 고적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였다.

핵심어 : 홍양호(洪良浩), 이계(耳溪), 북관(北關), 함경도(咸鏡道), 고적(古跡), 삭방풍요(朔方風謠), 흥왕조승(興王肇乘), 악장(樂章), 용비어천가(龍飛御天歌)

1. 서론

본고에서는 이계(耳溪) 홍양호(洪良浩, 1724~1802)가 경흥부사(慶興府使)로 좌천된 동안 함경도 지역에 남아 전하던 조선왕조 선조들의 고적(古跡)을 둘러보고 지은 작품을 분석하여 그가 창업의 역사를 인식한 특징적 방식을 도출해 내는 데 목적을 둔다. 이를 위해 조선초기의 기록과 홍양호의 저작을 대비하는 작업도 함께 수행하고자 한다.

홍양호는 18세기의 대표적인 문인 가운데 한 사람으로 소론계 인사임에도 요직을 역임했던 유력한 관료였다. 또한 학적 편력과 관심의 폭도 상당하여 성리학뿐만 아니라 역사·지리·성운학(聲韻學)·문자학·경제·과학기술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의 저술을 남긴 실학자적 면모를 보이기도 하였다. 이렇듯 18세기의 학술사를 선도했던 홍양호의 업적은 이미 여러 선행 연구에서 조명되었으며, 문학 분야에서도 그의 한시와 산문 전반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국문시가 한역(漢譯), 전(傳)의 특색, 여항인(閩巷人) 문학에 대한 관점에 이르기까지 다수의 검토가 이루어진 바 있다.¹⁾

-
- 1) 문학 분야에서 이루어진 근래의 주요 연구 성과는 대략 다음과 같다: 진재교, 『이계 홍양호 문학 연구』, 성균관대 출판부, 1999; 진재교, 「이계 홍양호의 의원전(醫員傳)에 나타난 인물 형상」, 『민족문학사연구』 21집, 민족문학사학회, 2002, 130~158쪽; 조혜숙, 「시조의 한역화 양상과 그 의미: 18세기의 한역 경향을 중심으로」, 『국어교육』 108호, 한국어교육학회, 2002, 459~492쪽; 정우봉, 「이계 홍양호 문학의 한 국면: ‘관물취상(觀物取象)’의 이해를 중심으로」, 『진단학보』 100집, 진단학회, 2005, 375~393쪽; 강석화, 「이계 홍양호의 생애와 학문관」, 『진단학보』 100집, 진단학회, 2005, 301~326쪽; 김동준, 「18세기 소론계 학동의 다각적 조명: 소론계 학자들의 자국어문 연구활동과 양상」, 『민족문학사연구』 35집, 민족문학사학회, 2007, 8~39쪽; 최기숙, 「조선후기 사대부의 생활공간과 글쓰기 문화: 이계 홍양호의 기(記)를 중심으로」, 『고전문학연구』 33집, 한국고전문학회, 2008, 333~367쪽; 김명순, 「조선후기 한시의 가사 수용 양상」, 『동방한문학』 37집, 동방한문학회, 2008, 261~289쪽; 여운필, 「적지(赤池)를 읊은 칠언고풍(七言古風) 3편의 형상성」, 『국문학연구』 27집, 국문학회, 2013, 89~124쪽; 박수천, 「이계 홍양호의 문학과 시문학」, 『한국한시연구』 23집, 한국한시학회, 2015, 251~278쪽; 정우봉, 「이계 홍양호의 연행록에 나타난 중국 체험과 그 의미」, 『한국한문학회연구』 63집, 한국한문학회, 2016, 67~95쪽; 권정원, 「이계 홍양호 한시의 상하층문학 융합의 일단: 북새문학을 중심으로」, 『문화와 융합』 39권 5호, 한국문화융합학회,

홍양호는 영조28년(1752) 29세에 등과한 이래 비교적 평탄한 환로(宦路)를 거쳤으나, 정조가 등극한 직후 홍국영(洪國榮)의 권세에 밀려 54세의 나이에 함경도 경흥부사로 3년여 동안 좌천되는 시련을 겪게 되었다. 비록 뜻하지 않게 북관으로 내몰린 상황이었으나 해당 기간 동안 그는 북관 지역의 삶을 세심하게 관찰하여 「북새기략(北塞記略)」을 저술하는가 하면, 이 지역 백성들의 생활상을 62수의 한시 연작 「북새잡요(北塞雜謠)」로 지어 인정세대를 흥미롭게 시화하기도 하였다. 이 시기의 저술 가운데 더욱 주목되는 부류는 북관 지역에서 흥기(興起)했던 왕실 선조들의 사적을 직접 답사하며 창업의 위업을 되새긴 글들이다. 홍양호의 시대는 개국 후 이미 400년이 흐른 시점이었으나, 때마침 영조와 정조는 창업주를 현창(顯彰)하고 북방 고적을 보존하는 데 열의를 지니고 있었다. 이러한 시대적 분위기와 북관을 직접 살필 수 있었던 개인적 계기가 맞물리면서, 홍양호는 목조(穆祖) 이안사(李安社, ?~1274) 이래 태조와 태종에 이르는 조종(祖宗)의 사적을 집성하고 그에 대한 시를 지어 감회를 표출할 수 있었던 것이다.

창업사에 관련된 홍양호의 작업으로는 우선, 총 55수의 한시 연작인 「삭방풍요(朔方風謠)」를 들 수 있다. 「삭방풍요」에는 그가 한성을 떠나 경흥에 부임하는 심정, 노년의 서글픔, 군역(軍役)을 살고 있는 수졸(守卒)들의 서러움, 북방 영토를 청(淸)에 상실한 안타까움, 한성으로 돌아가게 된 감회 등 여러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나, 그 핵심은 북관에서 둘러본 고적들에 대한 인상이며, 고적의 상당수는 목조에서 태종에 이르는 조선조 선왕들에 관한 것이다.²⁾ 시와 더불어 홍양호는 몇 편의 기(記)를 지어 남기기도 하였다. 사룡대(射龍臺)·적도(赤島) 등 추존(追尊) 사조(四祖)의 자취가 묻어 있는 유적의 풍광을 그려내고 유적의 의미와 선왕에 대한 숭앙의 정을 담아낸 이들 기는 시와는 또 다른

2017, 735~766쪽 등.

2) 윤관(尹瓘, ?~1111)의 여진족 토벌을 다룬 <장군대(將軍臺)>와 <시중대(侍中臺)>, 김종서(金宗瑞, 1382~1453)의 육진(六鎭) 개척을 다룬 <마천령(磨天嶺)>, 정문부(鄭文孚, 1565~1624)의 북관대첩(北關大捷)을 다룬 <임명대첩가(臨溟大捷歌)> 등을 제외하면 「삭방풍요」에서 거론된 대부분의 고적은 추존 사조 및 태조에 관련된 것이다.

방식으로 고적을 현창한 사례이다. 시만큼 많은 수는 아니지만, 개개 유적의 내력을 한결 세세한 필치로 서술하였다는 점에서 기는 홍양호의 견문을 보다 자세히 살필 수 있는 자료이다.

한편, 홍양호가 만년에 저술한 『흥왕조승(興王肇乘)』은 앞의 두 부류보다 방대하고 종합적인 성격을 띤다. 그는 창업에 관한 역사 서술이 소략하다는 문제의식을 평소 지니고 있었거니와, 『용비어천가(龍飛御天歌)』에 조종(祖宗)의 위업이 담겨 있기는 하나 추존 사조의 사적 가운데에는 빠진 것이 많을 뿐만 아니라, 조종의 사적을 고성(古聖)의 사적과 교직(交織)하거나 동일한 사적을 주기적으로 반복하여 배치한 탓에 기사체(記事體)와 편년체(編年體) 모두에 위배되는 착중(錯綜)이 발생했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홍양호는 누락된 사적을 여러 전적들에서 찾아 보충하는 한편, 시간 순서에 따라 내용을 재비치함으로써 완전한 편년체의 서술을 유지하고자 하였다. 총 4권으로 이루어진 『흥왕조승』 가운데 권1~3이 그 결과물에 해당한다. 특히 마지막 제4권에서는 북방의 고적을 집성하여 22가지로 정리하였는데, 각 고적에 간략한 설명을 붙인 후, 해당 고적과 관련된 어제시(御製詩)나 음기(陰記), 또는 문신들의 저작과 시를 부기하는 체제를 취하였다.³⁾ 여기에는 그가 일전에 지었던 시와 기가 일부 수록되어 있기도 하다.

위에서 언급한 자료들을 바탕으로 이하에서는 홍양호가 창업기의 사적과 고적을 인식한 방식을 검토하고자 한다. 홍양호는 왕실 조상들의 업적을 세차에 따라 정연하게 배치하는 것을 중시하였던 만큼, 본고에서도 추존 사조에 관한 사항들을 우선 다룬 후, 분량상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태조의 사적을 잇달아 검토하게 될 것이다.

3) 홍양호가 『흥왕조승』을 저술하게 된 이유는 「진흥왕조승차(進興王肇乘筴)」에서 직접 밝힌 바 있다. [홍양호, 「진흥왕조승차」, 『이계집』 권20.] 이를 통해, 정조 1년(1777)에 경흥부사로 좌천되어 북관을 직접 답사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던 점, 정계에 복귀한 후 『영조실록(英祖實錄)』의 찬집당상(纂輯堂上)이 되어 궁중에 보관된 각종 기록들을 열람할 수 있었던 점, 창업의 역사를 체계적으로 정리해야 할 필요성을 평소 느끼고 있었던 점 등을 주요한 이유로 파악할 수 있다. [김승우, 『용비어천가의 성립과 수용』, 보고서, 2012, 448~450쪽 참조.]

2. 추존(追尊) 사조(四祖)에 대한 인식과 숭모(崇慕)

추존 사조는 본래 임금이었다가 태조가 태조의 고조인 목조 이안사는 왕조가 창업되기 120여년 전에 이미 별세한 인물이다. 더구나 목조 이래로 익조(翼祖)·도조(度祖)·환조(桓祖)는 물론 태조까지도 중앙에서 멀리 떨어진 북관에서 주로 활동하였기 때문에 이곳에서의 사적은 당초부터 소략하게 전해질 따름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업의 역사를 단발적·우발적 계기가 아닌 ‘누인개국(累仁開國)’의 산물로 규정하려면 추존 사조의 업적을 최대한 뚜렷하게 언급해야 할 필요성이 다분하다. 이를 위해 홍양호는 사조의 행적과 연관된 북관의 고적에 주목하였다. 홍양호가 언급한 추존 사조의 고적을 『홍양조승』 권4에 수록된 내역을 중심으로 정리하면 [표1]과 같다.

[표1] 홍양호가 다룬 추존 사조의 고적

『홍양조승』 권4에 수록한 북방 고적	관련 인물	홍양호의 관련 작품
용당(龍堂)	목조	
알동(幹東)	목조	<알동가(幹東歌)>
덕릉(德陵)·안릉(安陵)	목조	『이릉기(二陵記)』
적전사(赤田社)	목조~도조	
적도(赤島)	익조	<적도가(赤島歌)>, 『적도기(赤島記)』
적지(赤池)	도조	<사룡대(射龍臺)>, 『사룡대기(射龍臺記)』
망덕봉(望德峯)	도조	<공주요(孔州謠)>
준원전(潛源殿)	환조	
함흥본궁(咸興本宮)	환조	<감석몽(感昔夢)>, 『함흥본궁어물기(咸興本宮御物記)』
경흥택(慶興宅)	환조~태종	<경흥택(慶興宅)>

위 내역을 통해 홍양호가 추존 사조의 위상을 인식한 경향과 그들에 대한 숭모의 정을 드러낸 방식을 검토하고자 하는데, 특히 조선 초기의 시각과 차이

를 보이는 <알동가>·<적도가>·<감석몽> 등의 사례들이 중시될 필요가 있다. 먼저 목조의 유적인 알동을 형상화한 <알동가>를 살핀다.

登南峰	남봉에 올라
望幹東	알동을 바라보노라.
幹東地是聖人墟	알동 땅은 바로 성인의 유적이니
時有光氣騰彩虹	때때로 빛나는 기운 무지개로 피어오르네.
粵昔穆祖避仇自全州	옛날 목조께서 원수 피해 전주에서 나오시어
踰關越嶺來此中	함관령(咸關嶺)을 넘어서 이곳에 오시었네.
聖聖相繼威德盛	성인이 서로 계승하여 위덕(威德)이 성대하니
諸部千戶皆率從	여러 부족 천호들이 모두 따르며 복종했네.
奚關城下夜藏甲	해관성(奚關城) 아래에다 밤에 병사 감추거늘
野嫗奉碗天誘表	들 노파가 주발을 받드니 하늘이 충심(衷心)을 가지게 한 것이로다.
白馬飛渡赤島水	백마가 나는 듯이 적도의 물 건너니
蒼龍護送馮夷宮	창룡(蒼龍)이 풍이(馮夷)의 궁으로 호송한 것이로다.
眞珠洲上草似錦	진주 연못 가의 풀은 비단과 같고
黑角峰頭月如弓	흑각 봉우리 정상의 달은 활과 같아라.
遊山百丈獻靈奇	신령하고 기이한 풍광 어린 백 길의 산을 유람하노라니
羽蓋金支飄半空	깃 일산 금장식 허공에 나부긴다.
嗚呼萬世肇基地	오호! 만세의 기틀을 연 땅이
不待百年今爲戎	백 년도 못 된 지금 오랑캐 땅 되었구나.
烏喇總管定界時	오라(烏喇) 총관(總管)이 경계 정할 때
奈何蹙我千里封 ⁴⁾	어이하어 우리의 일천 리 국경 쪼그라뜨렸던고?
(…)	(…)

4) 홍양호, <幹東歌>, 『삭방풍요』, 『이계집』 권5. 작품 번역은, 서한석·이승현 역, 『이계집』 2, 성균관대 출판부, 2020의 것을 따르되, 몇몇 어휘나 구절을 교체하였다. 이하 작품의 경우도 동일하다.

전주(全州)에 세거(世居)하던 목조는 자신이 총애하던 관기(官妓)를 고을의 원(員)인 산성별감(山城別監)이 취하자 그와 다툼 끝에 화를 피해 전주를 떠나게 된다. 알동은, 목조가 강원도 삼척(三陟)을 거쳐 함경도 덕원(德原)에 머물다가 다시금 옮겨 정착한 땅으로 경흥부(慶興府)의 동쪽 30리 지점에 있다. 전주의 거족이던 이성계의 가문이 왕조를 창업하는 계기가 된 사건이 바로 목조의 북방 이주였기 때문에 선초의 악장(樂章)에서는 이 점을 강조하여 주(周)의 선조인 고공단보(古公亶父)의 사적과 견주었으며, 목조가 전주를 떠날 때 170여 호(戶)가 붙좃아 왔다는 일화 역시 매우 중시하였다.⁵⁾ 목조에게 민망(民望)이 몰렸다는 점을 드러냄과 동시에, 비록 여진(女眞)의 땅인 알동에 터를 잡았지만 이성계 가문의 세력 기반은 여전히 고려의 백성이었다는 점을 강조하는 효과도 노렸던 것으로 파악된다.

홍양호가 알동을 다루는 관점 또한 기본적으로는 선초와 같으나 강조점을 바꾼 현상이 발견된다. 목조가 전주에서 이주하였다는 점은 명시하였지만, 그 계기는 단지 원수(仇)를 피해서라고만 언급하는 데 그쳤으며 관기의 문제 등과 같은 세부 사항은 배제하였다. 더구나 선초에는 매우 강조되었던 일화, 즉 전주의 가호들이 목조를 붙좃아 왔다는 일도 누락한 것은 이례적이라 할 만하다. 전체적으로 목조의 이주 사적이 선초보다 오히려 축약된 양상을 띤다. 대신 홍양호는 익조 이행리(李行里, ?~?)를 새롭게 부각하였다. 목조는 알동에 터를 잡은 직후 원(元)의 다루가치[達魯花赤] 직을 맡아 수행하였고 익조 역시 그 직을 승계하여 주변 여진 부족들에게서도 명망을 얻게 된다. 이를 시기한 여진의 천호(千戶)들이 작당하여 그를 해하려 하자 익조는 급히 가솔을 피신시키고 부인 손씨와 함께 적도(赤島)로 피신하여 한동안 거처한다. 선초에도 익조

5) 『용비어천가』 제3장. “周國 大王이 爾谷에 사르샤 帝業을 여르시니 / 우리 始祖 慶興에 사르샤 王業을 여르시니” [『용비어천가』 권1, 2a~6b쪽]; 『용비어천가』 제18장. “驪山役徒를 일흐샤 지브로 도라오실 제 열회 므스물 하늘히 달애시니 / 서북 使者를 썬리샤 바르를 건너실 제 二百戶를 어느 다투 請히니” [『용비어천가』 권4, 1a~4a쪽]; <保太平> ‘啓宇’. “天監在上, 自我民聽, 民之攸歸, 大命以定, 於皇聖穆, 遜峻厥德, 東浮于海, 慶興是宅, 人心競慕, 歸附日盛, 大啓厥宇, 基我永命.” [『세종실록』 권116, 29년 6월 5일(을축).]

의 사적으로 가장 두드러지게 언급하였던 것은 바로 이 이주 사적인데,⁶⁾ 홍양호는 목조의 고적으로 인식되어 온 알동을 다루면서도 오히려 그의 아들인 익조를 조명하였던 것이다.

결과적으로 홍양호가 알동 유적에 착목한 이유는 역설적이게도 익조가 알동을 버리고 떠난 사적과 연관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알동에 평온히 정착하지 못하고 다시금 쫓겨가야만 했던 상황이 알동의 의미를 더욱 강화하는 계기로 작동하였던 것이다. 알동은 창업의 기반을 이를 만한 땅이었으나, 끝내 취할 수 없었던 비운의 땅이자 상실의 땅이기도 했다. 익조가 하늘의 보우를 받아 무사히 알동을 탈출한 것은 장대한 일이었지만, 익조의 이주 이후 알동은 여진족의 관할로 넘어가 창업의 역사에서는 더 이상 등장하지 않는 회고의 공간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이러한 비애감은 위 시에서도 뚜렷이 나타난다. 홍양호는 작품의 후반부를 처연하고 비분에 찬 어조로 서술하였는데, 그 요지는 알동을 이제는 직접 가 보지 못하고 멀리서 조망할 수밖에 없다는 울분이다. 여기에는 당대적 사안에 대한 문제의식이 짙게 투영되어 있기도 하다. 정계(定界) 문제를 올바로 처리하지 못해 두만강 이북의 땅을 완전히 청(淸)에 넘겨준 관원의 실책을 홍양호는 신랄하게 비판하였다. 목조의 유지(遺址)를 잃은 안타까움이 세종대의 북방 개척 사업을 통해 해소될 수 있었으나, 백여 년 전의 실책으로 또 다시 간도(間島)를 빼앗겨 버린 비분을 표출하였던 것이다. 요컨대 홍양호에게 알동은 왕조 창업의 영광과 북방 영토 상실에 따른 비애감이 점철된 공간으로 인식되었다.⁷⁾

一片孤島三韓東

삼한의 동쪽에 한 조각 외로운 섬

6) 『용비어천가』 제4장. “狄人入 서리에 가샤 狄人이 굴외어늘 岐山 울므삼도 하늬 빠디시니 / 野人入 서리에 가샤 野人이 굴외어늘 德源 울므삼도 하늬 빠디시니” [『용비어천가』 권1, 6b~10a쪽.]

7) 또 다른 작품인 <황산유가(黃山遊歌)>에서도 알동을 빼앗긴 한탄이 직접 표출되고 있다: “金塘之野聖人居, 天造地設開奧區, 靈氣薰蒸啓三韓, 聲明物采嘆千秋, 至今撫夷江上望, 異事流傳入村諺” [홍양호, <황산유가>, 『삭방풍요』, 『이계집』 권5.]

瑩如紫玉滑如銅
 山根深插渤海青
 石面光耀出日紅
 白馬神人飛渡來
 巨浪中坻徒涉通
 追騎千羣盡却立
 頃刻歎看怒濤洪
 滹沱水合神應護
 檀溪馬躍事頗同
 避狄率水來胥宇
 又似周先君太公
 山有芝兮輝輝
 石出泉兮溶溶
 (…)

淸秋小棹訪靈跡
 一聲長笛倚穹窿
 噫丹丘赤城無乃是
 恍惚羽蓋遊此中⁸⁾

자색 옥처럼 맑게 빛나고 구리처럼 매끈해라.
 섬의 뿌리는 푸른 발해에 깊이 꽂혔고
 암석의 표면은 붉게 떠오르는 해에 빛나네.
 백마와 신인(神人)이 날아서 건너오니
 거대한 파도 중간이 갈라져 걸어서 물 건넜네.
 쫓아오던 천 무리 기병 모두 다 물러서니
 순식간에 성난 파도 몰아침을 문득 보도다.
 호타(滹沱)의 얼음 언 것은 신령이 보호하심이요
 단계(檀溪)에서 말 뛰어오른 것 똑 닮은 일이다.
 적인(狄人)을 피해 물가를 따라 함께 와서 집터 보니
 이는 또 주나라 선군인 태공(太公)의 일과 흡사하네.
 산에는 지초가 있어 맑게 빛나고
 암석에서는 샘이 팔팔 솟아 나오네.

(…)

청명한 가을 일엽편주로 신령스러운 유적 찾아가
 긴 것대 한 가락 불며 궁륭(穹窿)에 기대어 보네.
 아아! 단구(丹丘)의 적성(赤城)이 이곳이 아닐런가?
 황홀히 깃 수레가 이 가운데 노니네.

목조의 고적인 알동을 다룰 때조차도 목조보다는 익조를 전면에 내세웠던 <알동가(望韓歌)>의 사례에서도 드러나듯이, 홍양호는 익조가 창업의 기틀을 다지는 데 목조보다 더 크게 기여했다는 인식을 지니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실제로도 그의 저작에서는 익조의 사적이 선초에 비해 더욱 강조되었던 현상이 발견되는데,⁹⁾ 적도를 시화한 위 작품 또한 그러한 예 중 하나이다. 특히 홍양호는 전반적으로는 문헌상으로 고증할 수 있는 조종(祖宗)의 실덕(實德)을 중시하였으나, 상서(祥瑞)와 이적(異蹟) 역시도 송축해야 할 대상으로 인식

8) 홍양호, <赤鳥歌>, 『삭방풍요』, 『이계집』 권5.

9) 익조가 알동을 떠난 사적과 그가 피신했던 적도에 대해 <적도가>뿐만 아니라 『적도가(赤鳥記)』까지 지어 그 내력을 현창했던 것에서도 이 점을 확인할 수 있다. [홍양호, 『적도가』, 『이계집』 권13.]

하였다. 창업이란 민망(民望)뿐만 아니라 천명(天命)에 의거하지 않고서는 달성할 수 없는 대업이라고 여겼기 때문이다.

위 작품에서 익조와 부인 손씨에게 나타났다는 이적을 중시하였던 이유도 여기에 있다. 야인(野人)이 장차 군사를 몰아 올 것이라는 노파의 고지를 듣고서 익조는 가솔을 우선 배에 태워 피신시킨 뒤 한 마리의 말을 부인과 함께 타고서 마지막에 알동을 떠나게 되는데 적도의 북쪽 언덕에 이르러 물을 건너지 못해 위기에 빠진다. 이때 갑자기 물이 백여 보(步)나 밀려나서 길이 생기자 익조와 부인이 무사히 건너고 이내 물이 다시 채워져 적병들이 쫓아 오지 못했다는 사적이다.

동명왕(東明王) 신화를 연상케 하는 해당 사적은 선초 악장에서도 중시된 바 있는데,¹⁰⁾ 홍양호는 이 일을 한층 인상 깊게 다루었다. 초두부터 자색·청색·홍색 등 여러 색채를 대비하면서 백마의 흰 빛깔을 더욱 선명하게 드러내었고, 추격하던 여진 기병의 규모를 ‘천군(千羣)’이라 적시하여 당시의 위기를 강조하였으며, 후한(後漢) 광무제(光武帝)와 촉(蜀) 선주(先主) 유비(劉備)의 고사를 익조의 사적과 등치함으로써 익조에게 깃든 천명을 부각하였다. 광무제와 유비의 고사는 모두 『용비어천가』에도 나타난다. 다만, 광무제의 고사는 『용비어천가』에서도 익조의 사적과 등치되었으나,¹¹⁾ 유비의 고사는 태조가 수주(隨州)와 해주(海州)에서 적군과 격전할 때 태조의 말이 진흙탕을 분연히 빠져나오거나 뛰어넘었다는 일을 다루는 맥락에서 동원되었던 것이다.¹²⁾

10) 『용비어천가』 제20장. “四海를 년글 주리여 ㄹ러매 비 업거늘 얼우시고 또 노기시니 / 三韓을 년글 주리여 바라래 비 업거늘 녀토시고 또 기피시니” [『용비어천가』 권4, 6b~7a 쪽]; <發祥> ‘純佑’, “嗟嗟聖翼, 曰居韓東, 東人子來, 維德之從, 野人予侮, 將肆頑兇, 神婆告止, 迺避厥愾, 洪壽俄退, 白馬經進, 神所扶矣, 豈殞厥聞.” [『세종실록』 권116, 29년 6월 5일(음축).]

11) 『용비어천가』 제20장의 선사(先詞)에서 광무제의 사적을 다루었다. 광무제가 왕랑(王郎)의 군대에 쫓겨 호타하(嚆嗒河)에 이르렀을 때 강물이 잠깐 얼어 무사히 도강하였고 도강한 후에는 곧 얼음이 녹았다는 고사이다.

12) 『용비어천가』 제37장. “서불 賊臣이 잇고 혼 부니 天命이실씩 썬던 ㅁ를 하늘히 내시니 / 나라해 忠臣이 업고 호불사 至誠이실씩 여린 홀글 하늘히 구티시니” [『용비어천가』 권5, 40a~44b쪽]. 선사에서 유비의 사적을 다루었다. 유비가 번성(樊城)에 머물 때 형주목(荊

실상 익조가 물을 건널 수 있었던 이유는 말의 역량 때문이 아니라 천조에 힘입었기 때문이므로 굳이 말을 중요하게 언급해야 할 필연적 이유는 발견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마를 거둬 부각한 것은 익조의 도해(渡海) 광경을 한결 장엄하고도 감동적으로 그려내고자 했던 의도로 파악된다. 이는, 홍양호가 익조의 사적을 단지 문헌을 통해서만 접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직접 그 현장에 와서 살피고 있다는 사실과 관계 깊다. 비록 4백 년 전의 일이지는 하지만, 그는 익조가 도해하는 광경을 직접 눈앞에서 목도하는 듯한 감회를 지니고 있었던 것이다. 위 작품의 묘사나 서술이 꼭 과장된 것이라고만 판단할 수는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와 같은 현장감은 작품의 후반부에서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홍양호는 익조가 피신한 경로를 따라가며 그 자취를 되새기고, 잇달아서 적도에 직접 들어가 익조가 새롭게 터를 일구었던 땅의 경물을 완상하였다. 적도는 일종의 피난처였기 때문에 선초 악장에서는 그곳에서의 간난이 극심하였다는 점을 드러내는 데 치중하였다.¹³⁾ 반면, 적도를 직접 답사하고 그 현장에서 시를 착상했던 홍양호는 오히려 적도가 천혜의 길지라는 발상의 전환을 이루었다. 비록 의도하고 온 곳은 아니었으나, 산에는 지초(芝草)가 자생하고 바위에서는 샘물이 용출하는 곳이어서 사람이 살 수 있을 만큼의 조건이 충분히 갖추어져 있다는 사실에 주목한 것이다. 전체적으로 시각적 묘사가 두드러진 작품인데, 그러한 흐름을 이어 마지막에는 청명한 가을날의 상쾌함과 호젓한 피리 소리의 운

主牧) 유표(劉表)가 자신을 죽이려 한다는 사실을 깨닫고는 도망치다가 양양성(襄陽城) 서쪽에 있는 단계수(檀溪水)에 빠졌는데 타고 있던 적로(的盧)가 세 장(丈)을 솟구쳐 올라 물을 건넜다는 고사이다.

- 13) 『용비어천가』 제5장. “漆沮 그옛 음흘 後聖이 니르시니 帝業憂勤이 더러히시니 / 赤烏 안헛 음흘 至今에 보습느니 王業艱難이 이러히시니” 『용비어천가』 권1, 10a~10b쪽]; 『용비어천가』 제110장. “四祖 | 便安히 묻겨샤 현 고들 올마시노 몇 間口 지비 사르시리잇고 / 九重에 드르샤 太平을 누리실 제 이 뜰들 닳디 마르쇼셔” 『용비어천가』 권10, 43b~44a쪽]; 『용비어천가』 제111장. “豺狼이 構禍 | 어늘 一間茅屋도 업사 움 무더 사르시니이다 / 廣廈에 細氈 피고 黼座에 안즈샤 이 뜰들 닳디 마르쇼셔” 『용비어천가』 권10, 44a~44b쪽.]

치까지 더하고 있다. 적도를 과거의 역사적 공간이 아닌, 지금 직접 감각할 수 있는 공간으로 생동감 있게 소환해낸 작품이라 할 만하다.¹⁴⁾

春王二月在京師
中宵有夢一何奇
傳呼紫衣來華門
桓祖大王命召之
蒼黃顛倒攝冠裳
走詣行朝不淹時
崇墉屹屹列畫戟
層棟翼翼臨碧池
巍然寶座望若天
日月屏風山龍垂
(…)

皇靈詔記螻蟻賤

精誠暗與宵寐期
或者愍念在泥塗
拂拭薰沐加恩慈

苟非覽揆余衷情
耳提面命乃若茲
噫嘻天心將玉汝
前聖後聖傳一規

춘왕(春王) 2월 도성에 있을 때
한밤에 꾸었던 꿈 어찌면 그리도 기이한고?
액례(掖隸)가 사립문에 와 명을 전하며 부르니
환조대왕(桓祖大王)께서 나를 불러오라 명하셨다네.
정신없이 허둥지둥 의관 챙겨 입고서
행조(行朝)로 달려 나가며 시각 지체하지 않았네.
우뚝 솟은 담벼락에는 화극(畫戟)이 늘어섰고
웅장한 층루는 푸른 연못에 임하였네.
높다란 보좌(寶座)를 하늘과도 같이 바라보니
해와 달이 그려진 병풍에 산과 용이 드리웠네.
(…)

선왕의 영령께서 어찌 땅강아지나 개미처럼 천한
나를 기억하신 것이라

정성이 은연중에 꿈속에서 와 닿은 것이리라.
어떤 이는 시련 겪는 것이라 불쌍해하지만
먼지 털어주시고 향료 뿌리고 목욕시키는 은혜 더
해 준 것이라네.

참으로 나의 충정(衷情)을 헤아리시지 않았다면
자상하게 인도하심이 이와 같을 수 있었으랴?
아이! 하늘이 장차 나를 옥으로 완성하려 함이니
전성(前聖)과 후성(後聖)께서 똑같이 이끌어주심
이로다.

14) 이러한 특징은 도조의 사적을 다룬 <사룡대(射龍臺)>와 「사룡대기(射龍臺記)」에서도 잘 드러난다. [홍양호, <사룡대>, 「삭방풍요」, 『이계집』 권5; 「사룡대기」, 『이계집』 권13.] 도조가 백룡의 간청으로 흑룡을 활로 쏘아 물리쳤다는 이 사적에 대해 홍양호는 큰 관심을 가지고 있었으며 그 자리에 정자를 건립하기도 하였다. <사룡대>와 「사룡대기」에서는 도조의 사적을 자세히 서술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직접 둘러본 사룡대 주변의 풍광을 칭찬하고도 감각적으로 묘사하였다.

北方宦遊知多少	북방 관리 되어 유람할 일 얼마나 될지 아는가
此事從前更有誰	이런 일 종전에 누구에게 있었던고?
微軀曷報如天渥	미천한 몸으로 하늘 같은 은혜 어찌 갚을까
舊宮愈激沒世思	옛 궁에서 세상에 없으신 분 그리워하는 마음이 더욱 이네.
惟將寸管歌盛德	오직 붓을 잡고서 성대한 덕 노래하노니
遠配皇矣大明詩 ¹⁵⁾	아득히 <황의(皇矣)>와 <대명(大明)> 시에 짝하리로다.

다음으로 주목되는 <감석몽(感昔夢)>은 제목 그대로 꿈을 소재로 하고 있다. 북관 유적을 다룬 홍양호의 작품들은 대개 유적의 유래를 다루고 그에 대한 감회를 덧붙이는 방식으로 지어졌다. 창업의 영광을 현창하려는 공적인 의도가 뚜렷이 개입되었던 것이다. 반면, <감석몽>은 꿈속의 일이라는 한층 개인적인 체험을 담고 있는데, 정조에게 진상한 『홍왕조승』에 홍양호가 이 작품을 수록하지 않은 것도 그 때문으로 보인다.

이 작품에는 자서(自序)가 길게 달려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에 따르면, 정조 1년(1777)에 꿈을 꾸었는데 환조가 자신을 부르기에 놀라 나아가 시중하니 특별히 우대해 주었다고 하였다. 꿈이 워낙 기이하여 동생에게 그 이야기를 자세히 하였는데 공교롭게도 그해 겨울에 경흥부사로 좌천되었고, 부임하던 중 함흥(咸興)의 본궁(本宮)에 이르러 숙박을 하니 꿈에서 환조를 모셨던 공간과 본궁 풍패루(豐沛樓)의 풍광이 일치하기에 감격하여 곧바로 이 시를 지었다는 것이다. 또한 다음날 이성(利城)에서 머물 때 또 꿈을 꾸었고, 그 꿈에 임영대군(臨瀛大君) 이구(李璆, 1420~1469)가 나타나 자신에게 성찬을 베푸니 더욱 기이하게 여겼다고 하였다.¹⁶⁾

15) 홍양호, <感昔夢>, 『삭방풍요』, 『이계집』 권5.

16) 홍양호, <感昔夢>, 『삭방풍요』, 『이계집』 권5. “丁酉二月夜夢, 有掖隸到門, 傳桓祖大王命召. 賤臣卽具冠帶隨往, 至一大宮府, 拜于庭, 升高樓, 昵侍一如詩語. 旣覺異之, 語及家弟. 是冬有北行, 肅拜本宮, 望見豐沛樓, 歷歷如夢中所見. 不覺愕然而驚, 愀然而感, 因作此詩. 翌日宿利城, 又夢有貴官稱臨瀛大君, 以上命持盛饌來餉, 尤可異也.”

여기에서 무엇보다 주목되는 사항은 환조 이자춘(李子春, 1315~1360)의 등장이다. 함흥은 익조가 여진의 침탈을 피해 적도를 떠나 또 다시 옮겨 온 지역으로 여기에서 도조와 환조도 대를 이어 살았다. 태조가 등극한 후에 조상의 집터에 새로 집을 지어 추존 사조의 위패를 모셨는데, 홍양호가 함흥 본궁과 환조를 연계 지은 것도 이 때문으로 파악된다. 태조의 부친인 환조는 함흥을 근거지로 세를 규합하여 명성을 떨치고 고려의 정계에 진출함으로써 창업의 초석을 닦았던 인물이기 때문이다. 다만, 이러한 전말은 홍양호 자신조차도 사후에나 인식하게 된 사항이다. 처음에 그는 단지 꿈을 기이하게만 여겨 주변에 이야기하였을 따름이며, 함흥 본궁을 직접 둘러본 후에야 일전의 꿈에 환조가 나타난 것이 우연이 아니었다며 경탄하였다. 홍양호는 이 같은 일이 일어나게 된 연유를 나름의 관점으로 풀이하여 작품에 제시하였다. 그것은 곧 자신의 정성에 은연히 감응된 결과라는 것이다. 선왕들에게 품어 왔던 지극한 흠모의 정이 이 같은 꿈을 꾸게 한 동인이 되었다는 해석이다. 때문에 홍양호는 자신이 북관에 오게 된 것 역시 선왕의 뜻으로 받아들이면서 선왕들이 북관에 남긴 빼어난 행적을 현창하리라는 사명을 되새기기에 이른다. 실제로 한성에서 평탄하게 관직 생활을 지속하였다면 홍양호는 북방을 둘러볼 기회를 얻기 어려웠던 것이 사실이다. 북관을 유람한 관리가 얼마나 되느냐고 자문(自問)한 것에서도 이 점이 잘 드러난다.

그와 같은 인식을 더욱 강화하는 계기는 시를 지은 이튿날 꾸었던 꿈이다. 작품에는 반영되지 않았으나 사후에 지은 서문에 이 내용을 적시하였는데, 꿈에 등장한 임영대군은 또 다른 측면에서 홍양호에게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세종의 사자(四子)인 임영대군은 기질이 장대하고 무예에도 능해서 세종의 총애를 받았으며, 특히 새로 개척한 육진(六鎭)의 풍속을 교화하려고 경제소(京在所)를 설치할 때 왕조의 발상지로 지목된 경흥 지역을 맡아 관할한 바 있다.¹⁷⁾ 또한 약 10년 후에는 경흥의 북서쪽에 위치한 중성(鍾城)의 경제소를 또 다시

17) 『세종실록』 권80, 20년 3월 3일(정해).

관할하는 등 북방 지역을 조선의 강역에 온전히 편입하는 데 임영대군은 큰 역할을 담당하였던 것이다.¹⁸⁾ 임영대군이 꿈에 나타나 성찬을 베풀며 자신을 위무하였다는 체험은 바로 이러한 맥락에서 홍양호의 사명감을 되새기는 계기가 되었다. 대군이 경재소를 통해 관할했던 경흥은 바로 그의 부임지이기도 하기에 더욱 큰 감회를 느끼게 되었던 것이다.

이처럼 <감석몽>은 고적 자체보다는 개인적 체험을 주로 담고 있기는 하지만, 홍양호가 자신의 처지를 긍정하고 새로운 희망을 발견하게 된 내력을 보여 주는 작품으로서 의미가 있다. 사실상 중앙 정계에서 방축 당한 그가 오히려 북관에서의 생활을 자신의 시야와 학적 역량을 확장하는 기회로 활용할 수 있게 한 인식의 전환이 이 작품에 잘 드러난다. 스스로를 다잡고서 북관의 고적을 직접 찾아 다니며 그곳의 풍광과 진승까지도 세세하게 탐문하여 작품화할 수 있었던 추동력이 환조와 임영대군을 꿈속에서 만났던 체험을 통해 확보되었던 것이다. 그러한 측면에서 <감석몽>은 『홍왕조승』과 「삭방풍요」에 소재한 여러 작품들을 포괄하는 듯한 형상을 보여 주기도 한다.¹⁹⁾

3. 태조의 고적과 이적(異蹟)에 대한 현창(顯彰)

작품 수와 분량 면에서 다소의 편차가 있기는 하나 『홍왕조승』이나 「삭방풍요」에서 홍양호는 추존 사조를 빠짐없이 다루었다. 그러나 창업의 역사에서 아무래도 중심에 놓이는 인물은 단연 태조이고 고적 역시도 태조의 것이 핵심을 이룬다. 『홍왕조승』에 정리된 북관 고적들 가운데에도 태조의 것이 절반을 넘을 정도로 그 비중이 높다. 홍양호가 다룬 태조의 사적을 대략적인 시간 순차에 따라 정리하면 [표2]와 같다.

18) 『세종실록』 권115, 29년 2월 11일(계묘).

19) 이상 추존 사조의 고적을 다룬 홍양호의 특징적 방식에 대한 정리는 본고의 결론에서 수행하였다.

[표2] 홍양호가 다룬 태조의 고적

『홍왕조승』 권4에 수록한 북방 고적	홍양호의 관련 작품
토우기(土宇基)	<토우기(土宇基)>
덕원수(德源樹)	
흑석리(黑石里)	
괘궁송(掛弓松)	<괘궁송(掛弓松)>
독서당(讀書堂)	<독서당(讀書堂)>
제성단(祭星壇)	
석왕사(釋王寺)	
치마대(馳馬臺)	<치마대(馳馬臺)>
격구정(擊毬亭)	<격구정(擊毬亭)>
쌍성(雙城)	
함관령(咸關嶺)	<함관평(咸關平)>
철관(鐵關)	<철령고(鐵嶺高)>
	<청해사(靑海祠)>

고적을 특징에 따라 둘로 대별해 보면, 한편으로는 태조가 함흥에서 성장하며 빼어난 자질을 나타내었던 사적과 관계된 부류가 있고, 또 한편으로는 태조가 군사를 이끌고 북방을 안정시킨 사적과 관계된 부류가 있다. 후자의 부류는 태조의 뚜렷한 전공과 연관되므로 그 사적이 선초부터 악장 등으로 널리 칭송되어 왔던 반면, 전자의 부류는 태조가 아직 두각을 나타내기 이전의 일과 연계된 것이어서 상대적으로 덜 알려져 있었던 사례들이 대부분이다. 이하에서는 전자와 후자에 해당하는 작품들을 선별하여 우선 차례로 살핀 후, 태조의 이적을 다룬 또 다른 사례들을 잇달아 검토하고자 한다.

선초의 기록에는 뚜렷하지 않은 전자의 사례로 들 수 있는 대표적인 작품이 <독서당(讀書堂)>이다. 함흥 본궁 인근의 귀주동(歸州洞)에 위치한 독서당은 태조가 잠저(潛邸) 시절 반석 위에 짓고 책을 읽었다는 곳이다. 홍양호 당대에는 원형을 확인하기 어려웠고 후인들이 태조를 숭모하여 개축한 건물만을 볼 수 있었을 뿐이었으나, 그는 독서당을 특기할 만한 고적으로 다루었다.

讀書堂	독서당은
歸州洞裏雪山陽	귀주동 안쪽 설봉산(雪峰山) 남쪽에 있네.
伊昔東方聖人作	옛적에 동방에서 성인이 나오시니
聰明神武似禹湯	총명(聰明)과 신무(神武)가 우 임금과 탕 임금 같
	았네.
天縱生知不自聖	하늘이 생지(生知)를 내심이요 스스로 성인이라
	하신 것 아니니
詩書六藝學無方	시서(詩書)와 육예(六藝) 배움에 정해진 방도가 없
	었네.
茅屋數間山之中	떠집 몇 칸 산중에서
層巖爲屏土爲床	층암을 병풍 삼고 땅을 책상 삼았네.
(…)	(…)
維時中國屬大明	이 때에 중국이 대명(大明)에 속하니
同文萬里通車航	동문(同文) 만 리에 수레와 배가 통하는도다.
洪武二十五載卽壬申	홍무 이십오 년은 바로 임신년
一似檀君戊辰並陶唐	단군 무진년이 도당(陶唐) 때였던 것과 똑같아라.
羅麗以來數千年	신라와 고려 이래 수천 년
鴻濛始鑿開滄荒	혼돈과 비속함 비로소 끊고 개척했네.
聲明文物軼華夏	제도와 문물이 중화보다 뛰어나니
一代制作何輝煌	일대(一代)의 제작(制作)이 어찌 이리 찬란한고!
(…)	(…)
劉家舊豐唐晉陽	유가(劉家)의 구풍(舊豐)과 당의 진양(晉陽)에도
不聞當時有書庄	당시에 독서당 있던 말은 듣지 못하였어라.
滄海爲硯兮白山爲筆	푸른 바다 베틀 삼고 백두산을 붓 삼으니
神功何以大鋪張	신성한 공업 어떻게 크게 펼치셨던고.
惟有舊堂巋然山海間	옛 독서당이 우뚝하게 산해(山海) 사이에 남았으니
年年春到百花滿地香 ²⁰⁾	해마다 봄 되면 온갖 꽃이 대지 가득 향기 뿜누나.

선조의 문헌에는 태조의 수학기를 다룬 기록 자체가 뚜렷하지 않을 뿐더러 독

20) 홍양호, <讀書堂>, 『삭방풍요』, 『이계집』 권5.

사에 관한 사항은 더욱 더 찾아보기 어렵다. 장년기까지 범위를 확대해 보아도 태조가 문사(文士)의 식견을 지니고 있었다는 언급은 드문 편이다. 가령 『용비어천가』에는 태조가 군중(軍中)에 있으면서도 틈틈이 유자(儒者)를 불러 함께 경사(經史)를 논하였으며 태종으로 하여금 유학(儒學)을 닦도록 독려했었다는 정도의 다소 단편적인 일화만이 수록되었을 따름이다.²¹⁾ 『용비어천가』를 비롯한 선초의 악장에서 임금을 군사적 영웅만이 아닌 ‘문화적 영웅(cultural hero)’ 내지 ‘도덕적 거인(moral giant)’으로 추앙하려는 경향이 나타난다는 점은 이미 잘 알려진 사항이지만,²²⁾ 이때의 ‘도덕적’ 덕목이란 후덕함이나 관용 등으로 표상되는 것이 보통이며, 유자적 위상과 학식 등으로는 별반 나타나지 않는다. 실상 목조 이래의 선조들이 모두 무인으로 활동해 왔고 자신도 무장의 길을 걸었던 태조에 게서 문사의 면모를 찾아보기는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선초의 사신(詞臣)들은 태조가 무뿐만 아니라 문도 소홀히 하지 않았다는 점을 애써 드러내고자 하였으나 당초부터 충분한 성과를 거두기는 어려웠던 것이다.

반면, 태조의 고적을 직접 답사한 홍양호는 보다 적극적으로 이 문제에 대처하였다. 「삭방풍요」에서 그는 태조가 독서를 했던 공간 두 곳을 지목하여 각각 시화하였는데, 먼저 <토우기(土宇基)>에서는 소싯적에 태조가 스스로 움집을 만들어 그곳에서 열심히 독서를 하며 간난을 견뎌내었기에 후일 대업을 이룰 수 있었다는 칭송을 표하였다.²³⁾ 선초에는 발견되지 않는 이 일화는 익조가

21) 『용비어천가』 제80·81장. “武功뿐 아니 爲ᄃᆞ샤 선비를 아라실씨 鼎峙之業을 세시니이다 / 詩賦이 겨를 업스샤더 선비를 드스실씨 太平之業이 빛나시니이다”; “千金을 아니 앓기 샤 글冊을 求ᄃᆞ시니 經世度量이 크시니이다 / 聖性을 아니 미드샤 學問이 기프시니 創業規模] 머르시니이다” [『용비어천가』 권9, 30a~33a쪽.] 한편, 『태조실록』에서는 태조가 진덕수(眞德秀)의 『대학연의(大學衍義)』를 탐독했다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기술하기도 하였다: “太祖素重儒術, 雖在軍旅, 每投戈之隙, 引儒士劉敬等, 商確經史, 尤樂觀眞德秀『大學衍義』, 或至夜分不寐, 慨然有挽回世道之志” [『태조실록』 권1, 『충서』.]

22) Peter H. Lee, 김성인 역, 『용비어천가의 비평적 해석』, 태학사, 1998, 33쪽; 김홍규, 『선초 악장의 천명론적 상상력과 정치의식』, 『한국시가연구』 7집, 한국시가학회, 2000, 147쪽.

23) 홍양호, <土宇基>, 『삭방풍요』, 『이계집』 권5. “土宇基靈且奇, 王業起於斯, 皇祖避寇自赤島, 雙騎白馬遵海澗, 譬如太王踰梁山率西諳, 聿來胥宇同厥妃, 歸州之山竊且深, 陶復陶穴何勤孜, 象爲耕兮鳥爲耘, 山蓄水飲禦渴飢, 積厚流光仍發祥, 天降百祿無不宜, 篤生 神孫受景

적으로 피신한 후 그곳에 움집을 만들어 살았다는 유명한 사적을 연상케 한다.²⁴⁾ 익조가 생존을 위해 땅을 뚫듯이 태조는 학식을 쌓기 위해 손수 산골짜기에 움집을 지었다는 점이 흥미롭게 조응된다.

태조의 문사적(文士的) 면모가 더욱 강조된 작품은 위 <독서당>이다. 여기에서는 태조를 완전히 유자의 면모로 그려내는 데 치중하였다. 태조의 총명함을 ‘생이지지(生而知之)’라고 칭송하는가 하면 정해진 방도 없이 빠르게 학업을 이룩해 가는 출중한 능력을 부각하였다. 이러한 언술은 당연히 태조의 탁월한 문재를 강조하기 위함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태조가 학문을 깨우친 경위가 분명치 않은 실상을 일정 정도 무마하기 위함으로도 파악된다.²⁵⁾ 뚜렷한 수학 경위와 스승을 알 수 없는 상황이니, 태조가 문사의 자질을 갖추게 된 계기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결국 별도의 도움 없이도 학문을 깨우친다는 ‘생이지지’의 역량을 거론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이를 통해 홍양호는 태조가 문무를 겸비한 일대의 영웅이라는 점을 드러내려 하였는데, 작품 초두부터 태조의 면모를 ‘총명(聰明)’과 ‘신무(神武)’ 두 가지로 적시한 것도 그 때문이다. 특히 그는 명(明) 태조와 조선의 태조가 25년 차이를 두고 등극하였으며 이는 요임금이 등극한 지 25년 만에 단군(檀君)이 고조선을 세웠던 것과 일치한다는 사실을 중시하였다.²⁶⁾ 그 점을 굳이 언급한

命, 化家爲國終不遲, 檀木椹花三千里, 不階尺土奄有之, 長白山青海瀾闊, 髣髴瓜瓞無窮期, 君不見土宇基, 誰知王業艱難時, 嗚呼誰知王業艱難時.”

24) 『용비어천가』 제5장. “漆沮 ㄹ샹 움흘 後聖이 니르시니 帝業憂勤이 더러히시니 / 赤島 안헛 움흘 至今에 보습느니 王業艱難이 이러히시니” [『용비어천가』 권1, 10a~10b쪽.]

25) 홍양호 자신이 편찬한 『홍왕조승』에 따르면 태조는 8세 때 성씨(成氏) 성을 가진 적객(謫客)에게 배운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는 선초의 기록에서는 발견되지 않는다. 더구나 해당 기록에서 태조는 변방에서는 문무를 함께 익혀 변란에 대비해야 한다며 스승을 오히려 깨우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及八歲, 就學於謫客成姓人, 夜則讀書, 晝則出射, 曰: “邊方待變之地, 文武並習, 長久之術也.” 成公大奇之.” [홍양호, 『홍왕조승』 권1, 8a쪽.]

26) 이는, 단군이 우리 역사의 비조(鼻祖)이며 우리 역사가 중국에 필적할 만큼 장구하다는 홍양호의 인식을 보여 준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흥미롭게도 이와 같은 인식은 홍양호의 손자인 관암(冠巖) 홍경모(洪敬謨, 1774~1851)에게서도 발견되는데, 홍경모는 선초 악장 <하황은(荷皇恩)>을 개작한 작품 <수명(受命)>에서 요임금과 단군, 명 태조와 조선 태조의 쌍을 역시 제시한 바 있다: 홍경모, <受命>, 『國朝燕享樂歌』, 『國朝樂歌』 권4.

이유는 물론 태조의 등극이 역사적 필연에 의한 것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함이지만, 작품의 중후반부에 이르면 또 다른 이유가 나타난다. 홍양호는 자신의 시대가 중국을 능가할 만큼 예의와 도리를 갖춘 시대라고 규정하면서 그러한 교화가 태조의 문덕에서 연원한다는 감격을 표출하였던 것이다.

조선과 명이 거의 동시에 건국되었으되 명은 이미 망해 버렸으나, 조선은 지금도 면면히 제도와 문물을 이어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일반 백성들에게까지 덕화(德化)가 미치고 있다는 소중화(小中華) 의식을 드러내었다. 이러한 구도는 독서당이라는 고적의 존재를 강조할 때에도 그대로 적용되었다. 한(漢) 고조(高祖) 유방(劉邦)이나 당(唐) 고조 이연(李淵)이 소년기에 독서를 했다는 유적은 남아 있지 않은 반면, 태조의 독서당은 4백 년이 지난 시점에도 그 선연한 풍모가 전해진다고 자긍하였던 것이다. 백화가 만발하는 장관이 그러한 감회를 더욱 북돋는다. 꽃향기가 온갖 곳으로 퍼져 나가듯이 태조가 독서당에 남긴 유자적 사취가 조선 전체를 감싸 도는 듯한 인상을 제시하며 작품을 화사하게 종결하였다.

擊毬亭

臨滄溟

滄溟之水綠繞龍潛里

水光山色何青青

魯人獵較兮聖人多能

于以戰藝九達庭

其毬伊何削木成

大於鵝卵圓如鈴

縱橫跳擲勢不定

上下杖尖無暫停

走時快如盤上珠

落處閃若雲間星

毬兮異乎人之毬

격구정은

푸른 바다에 임해 있네.

푸른 바닷물이 용잠리(龍潛里) 휘감아 도니

물빛과 산색은 어찌 저리 푸른고?

노나라 사람이 엽각(獵較)함이어! 성인은 잘하시
는 일 많나니

이에 대로(大路)의 뜰에서 기예를 겨루셨도다.

그 공은 어떠한가? 나무 깎아 만들었나니

고니 알보다 크고 방울처럼 둥글도다.

종횡무진 날고 뿔에 판세가 정해지지 않으니

뾰족한 장시(杖匙) 오르내리며 잡시도 멈추지 않네.

말 달릴 적엔 빠르기가 소반 위 구슬 같고

공 떨어질 제 번쩍임은 구름 사이 유성인 듯.

공이어! 남들의 공과는 다르니

小用大用不同形	보통 사람과 위대한 사람 쓰는 공 모양 같지 않아라.
運之掌上神無方	손바닥에서 가지고 노는 듯 신묘하기 짝이 없으니
擘山嶽兮擊雷霆	산악을 때려 치고 우리가 번쩍이는 듯하네.
三韓天地大如毬	삼한(三韓) 천지는 커다란 공과 같으니
神人夢授金尺筵	신인이 현몽하여 금척(金尺) 채 주었도다.
一擊兮哈蘭城	한 번 쳤어라! 합란성(哈蘭城)
朔方千里洗羶腥	삭방(朔方) 천 리에 오랑캐 누린내 씻기누나.
再擊兮雲峰野	두 번 쳤어라! 운봉(雲峰) 들관
江戶百蠻讐威靈	수많은 왜구들 위령(威靈)에 벌벌 떠누나.
三擊兮威化島	세 번 쳤어라! 위화도(威化島)
八紘山河俄清寧 27)	천하의 산하가 갑자기 태평해지누나.
(…)	(…)

<토우기>나 <독서당>은 태조의 유자적 면모를 이례적으로 강조한 보기 드문 사례이다. 그러나 아무래도 태조의 본연적 면모는 왜구(倭寇)나 홍건적(紅巾賊), 북원(北元) 등을 격퇴하여 구국의 선봉에 섰던 무인적 위상이므로 선초의 악장에서도 이 부분이 강조되었다.²⁸⁾ 다만 태조의 무공과 무예는 꼭 전승(戰勝)과 관련된 맥락에서만 다루어지지 않는 않으며 때로는 다소 가벼운 필치로 그려지기도 하였다. 가령 『용비어천가』의 중반부에서는 태조의 신이한 사냥술, 활쏘기 시합에서의 일화, 장애물을 뛰어넘는 승마술, 심지어 격구(擊毬) 기술까지도 제시된 바 있다.

격구는 기병들의 기동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훈련의 일환으로 고려시대부터 성행했으나 일종의 오락으로 인식되기도 하였으며, 『용비어천가』에 묘사된 격구 경기의 광경 또한 완연히 유희적 성격을 띠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

27) 홍양호, <擊毬亭>, 『삭방풍요』, 『이계집』 권5.

28) 가령, 정도전(鄭道傳, 1342~1398)이 지은 <납씨곡(納氏曲)>·<궁수분곡(窮獸奔曲)>·<정동방곡(靖東方曲)>에서 외적을 척결하는 태조의 위세와 무용이 형상화되었다. [정도전, 『악장』, 『삼봉집』 권2.] 또한 <정대업(定大業)>의 ‘혁정(赫整)’·‘신정(神定)’·‘개안(凱安)’·‘지덕(至德)’·‘휴명(休命)’·‘순응(順應)’ 등에서도 태조의 무공이 자세히 칭송된 바 있다. 『세종실록』 권116, 29년 6월 5일(을축).

양호가 격구에 주목한 이유는 역시 격구와 관련된 고적 때문이다. 함흥부의 남쪽 30리 지점에는 태조가 격구를 하던 너른 터와 이를 기념하기 위해 후인들이 지은 정자가 남아 있다고 하였는데, 홍양호는 이곳에 직접 들러 옛일을 상기하였다. 그는 우선 해안에 면한 격구정의 승경을 묘사한 후 이내 태조의 격구 기술을 언급하였는데 그 방법이 사뭇 조심스럽다. 『용비어천가』에서는 태조가 격구에 능했다는 사실을 직접적으로 다루었던 데 반해서,²⁹⁾ 홍양호는 성인은 다재다능하다는 점을 우선 전제하여 태조의 격구 실력이 비록 잡기(雜技)이기는 하나 그조차도 태조의 영웅적 위상에 부합한다는 인상을 표출하였다. 홍양호 자신도 격구정 유적이 여타의 북관 고적에 비해서는 그 비중이나 의미가 상대적으로 미약하며, 격구 실력을 들어 태조를 추앙하는 것이 실효가 있는지 의문시될 수 있는 여지를 어느 정도 인식하였던 듯하다. 그리하여 『용비어천가』에서처럼 격구 기술 자체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방식을 지양하고 대신 비유적 구도를 도입하였다. 격구 경기의 핵심이 되는 도구인 공과 채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였던 것이다. 태조가 사용했던 격구 공이나 채에 대해서는 선초의 기록에서 특별히 언급된 바가 없으나 홍양호는 태조의 공과 채 모두 예사 것과는 달랐다고 단언하였다.

우선, ‘삼한 천지(三韓天地)’라고 표현한 격구 공은 정세나 전황의 판도를 드러내기 위한 소재로 활용하였다. 더욱 흥미로운 소재는 격구 채이다. 여기에서 홍양호는 이른바 몽금척(夢金尺)의 사적을 가져와 묘미 있게 격구와 연관 지었다. 태조가 잠저 시에 꾸었던 꿈에 한 신인(神人)이 나타나 태조에게 금척을 주면서 삼한을 영도하도록 위촉하였다는 이 일화는 선초부터 중시되어 창업 직후 정도전이 <몽금척> 악장을 지어 칭송한 바 있다.³⁰⁾ 이러한 전례를 활용

29) 『용비어천가』 제44장에서 이러한 내용이 발견된다: “恭愍王時, 太祖亦與其選, 行擊之時, 馳馬太疾, 已垂楊矣. 毬忽爲石所觸, 反入馬前二足之間, 出後二足之間. 太祖便仰臥側身, 防馬尾而擊之. 毬還出馬前二足之間, 復擊而出門. 時人謂之防尾. 【치니마기】 又行擊之時, 亦已垂楊. 毬激橋柱, 出馬之左. 太祖脫右鏡, 翻身而下, 足不至地, 擊而中之. 卽還騎, 復擊而出門. 時人謂之橫防. 【엇마기】 擧國驚駭, 以爲前古無聞.” [『용비어천가』 권6, 40a~40b쪽]

30) “惟皇鑑之孔明兮, 吉夢協于金尺, 淸者老矣兮直其懸, 繫有德馬是適, 帝用度吾心兮, 俾均齊

하여 홍양호는 태조가 마치 금척으로 격구를 하는 듯이 서술하였던 것이다. 표준적인 척도(尺度)를 관장한다는 의미로 왕권의 상징이 된 자는 그 긴 모양 때문에 또 다른 쓰임을 연상케도 한다. 실제로 홍양호와 같은 시대의 문인인 혜환재(惠寰齋) 이용휴(李用休, 1706~1782) 또한 그의 <몽금척송(夢金尺頌)>에서 금척을 의(義)를 표방하는 기치, 제도를 바로잡는 기준, 군사를 통솔하는 지휘봉 등의 의미로 다양하게 형상화한 바 있는데,³¹⁾ 홍양호의 발상도 이와 유사하다.

앞서 격구 공으로 정세나 전황을 비유하였기에 격구 채는 그러한 판도를 자재하게 이끌어 가는 태조의 결단력 내지 영도력을 표현하기 위한 소재로 활용하였다. 금척 격구 채로 공을 쳐 내는 태조의 모습을 천명과 민심을 기반으로 국가적 난항을 일거에 헤쳐 나가는 영웅의 형상으로 칭송하였던 것이다. 자칫 태조의 개인적인 잡기 정도로 치부될 수도 있는 격구 실력을 창업의 과정과 연계 지어 새로운 의미로 부각해 낸 홍양호의 안목이 돋보이는 대목이다.

한편, 작품의 중후반부에서 그는 태조가 세 번에 걸쳐 격구 공을 치는 행위를 묘사하면서 태조의 군사적 위업 세 가지를 강조하기도 하였는데, 이는 선초의 구도를 뚜렷이 계승한 결과이다. 태조2년(1393) 7월에 정도전은 태조가 여말에 국가적 환란을 극복했던 세 가지 무공을 지목하여 <납씨곡(納氏曲)>·<궁수분곡(窮獸奔曲)>·<정동방곡(靖東方曲)>으로 칭송한 바 있다.³²⁾ 각각 북원의 나하추[納哈出]를 패퇴시킨 전공, 삼남(三南)에 침구한 왜구를 운봉에서 결정적으로 물리친 황산대첩(荒山大捷), 그리고 대의와 명분에 따라 요동

乎家國，貞哉厥符兮，受命之祥，傳子及孫兮，彌于千億。”[정도전, <몽금척>, 『악장』, 『삼봉집』 권2.] 한편, 이 내용은 『용비어천가』 제83장과 <발상(發祥)> ‘정희(禎禧)’에서도 다루어진 바 있다: “君位를 보비라 홀씩 큰 命을 알외리라 바름 우회 金塔이 소스니 / 자호로 制度] 날씩 仁政을 맞도리라 하늘 우횿 金尺이 누리시니” [『용비어천가』 권9, 35a~35b쪽]; “麗運斯頻，懜無友紀，天眷聖祖，迺格迺理，迺度我心，迺立民極，休祥自徵，夢授金尺，永作律度，以正邦國，平平蕩蕩，民用不忒。” [『세종실록』 권116, 29년 6월 5일(을축)].

31) 김승우, 「<몽금척(夢金尺)> 악장(樂章) 및 정재(呈才)의 전승과 지역적 확산」, 『옛 문학에서 발견한 전라북도 문화 풍경』, 태학사, 2020, 315쪽.

32) 『태조실록』 권4, 2년 7월 26일(기사).

정벌군을 돌려 전란의 위기에서 나라와 백성을 구한 위화도회군(威化島回軍)이 그것이다. 태조가 세운 군사적 업적은 여럿 있으나, 가장 중요한 것으로 위세 가치를 부각하는 관례가 정도전 이래로 정착되었고 홍양호 또한 선조의 시각을 반영하여 격구를 하는 호쾌한 광경으로 태조의 세 가지 위업을 인상 깊게 드러내었던 것이다.³³⁾

(…)	(…)
鐵嶺高	철령 높은지고
烈風長怒號	매서운 바람 길이 성내며 울부짖네.
玄水峨峨拖穹壁	두터운 빙벽 높이 높이 큰 벼랑 드리우니
飛鳥戢翼兮斑豹悲嗥	날던 새 나래 접고 표범은 슬피 운다.
行人顛車轂翻	길 가던 사람 자빠지고 수레바퀴 뒤집히니
詰屈低仰如桔槔	꼬불꼬불한 길 오르내림이 길고(桔槔) 같아라.
往者鞅鞅窟其墟	지난날 말갈(鞅鞅)의 소굴이던 그곳
千里封疆淪腥臊	천 리의 변방은 오랑캐 비린내로 찌들었지.
男不耕兮女不織	남자는 밭 갈지 않고 여자는 베 짜지 않고
橫戈挾笏紛繚騷	창과 활 차고서 어지러이 날뛰었네.
生靈塗榛莽	백성들 황야에 얹어지고
原野流血膏	벌판은 피바다 되었어라.
鐵嶺高鐵嶺高	철령 높은지고 철령 높은지고
山河氣勢何雄豪	산하의 기세 어찌 저리 웅장하고?
聖人起朔方	성인께서 삭방에서 일어나시니
劍三尺鞭一條	삼 척 검과 한 가닥 채찍 드셨도다.
指揮定三韓	지휘하여 삼한을 안정시키니
左黃鉞右白旄	왼편에는 황월(黃鉞)이요 오른손엔 백모(白旄)로다.
西方大旂從天下	서방의 큰 깃발 하늘에서 내려오니

33) 이렇듯 맑고 장쾌한 어조를 띠고 있지만, 말미에서 홍양호는 다소간 안타까움을 드러내기도 하였다. 태조의 장대한 기상이 더 뻗어가지 못하고 조선의 강역에만 갇히게 된 상황을 탄식한 것이다: “齊楚江南眼界濶, 日月如丸轉青冥, 頗恨鯨域之內步履窄, 白山豆江小門扁.” [홍양호, <격구정>, 「삭방풍요」, 『이계집』 권5.] 간도 지역을 상실한 한탄이 격구정을 다루는 맥락에서도 불거져 나온 것으로 파악된다.

九城諸部一戰塵
神驍如電箭如星
善介雙縛生眞逃

三軍凱歌入和州
萬姓驩呼迎干闥
北至長白東瑟海
魑髻盡解加冠袍

(…)

街童盡唱龍飛歌
武士皆騎白鼻毫
縫掖彬彬習禮讓
明廷往往登俊髦
生兒育孫孫生曾耳雲

架有裳衣兮甕有酒醪³⁴⁾

(…)

아홉 성 여러 부족을 한 싸움에 무찔렀네.
신마(神馬)는 번개 같고 화살은 유성 같아
삼선(三善)과 삼개(三介)를 둘 다 묶자 살아서 여
진으로 달아났네.

삼군이 개천가 부르며 화주(和州)로 들어오니
백성들 환호하며 깃대 잡고 춤추며 맞이했네.
북쪽으로 백두산에서 동쪽으로 슬해(瑟海)까지
오랑캐 상투 모두 풀고 의관 차려입게 되었어라.

(…)

거리 아이들 모두가 <용비어천가> 부르고
무사들은 모두 백비호(白鼻毫)를 탔구나.
문아(文雅)한 선비들 예양(禮讓)을 익히니
밝은 조정에서 왕왕 준걸(俊傑)을 등용하네.
아이 낳고 손자 기르고 손자는 증손 낳고 이운(耳
雲)으로 이어지며

시렁에는 의복 있고 향아리에는 술 있어라.

(…)

이번에는 태조의 실덕 가운데 핵심을 차지하는 무공을 홍양호가 어떻게 다
루었는지 살필 차례이다. 태조가 치루었던 수많은 전투 가운데 홍양호가 북관
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었던 전장은 두 곳이다. 하나는 북원의 나하추를 제압
했던 함흥평야 일대인데, 이에 대해서는 <함관평(咸關平)>을 통해서 자세하게
전황의 전말을 서술하고 태조의 뛰어난 능력과 구국 의지를 칭송하였다. 정도
전의 <납씨곡>을 잇는 작품이라 하겠으나 홍양호는 전장을 몸소 답사하고서
시를 지었기에 승마술이나 궁술에 대해서까지 세세한 필치로 기술하여 전황을
보다 생동감 있게 되살려낼 수 있었다.

또 하나는 철령(鐵嶺) 지역이다. 나하추와의 전투·황산대첩·위화도회군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철령 일원에서 삼선(三善)과 삼개(三介)를 패퇴시킨 전투 역

34) 홍양호, <鐵嶺高>, 『삭방풍요』, 『이계집』 권5.

시 태조의 중대한 업적으로 인식되어 『태조실록』과 『용비어천가』에서도 빠짐 없이 다루어진 바 있다.³⁵⁾ 당시의 전황은 대단히 급박하게 전개되었다. 공민왕(恭愍王)이 반원(反元) 정책을 펼치며 기씨(奇氏) 일파를 제거하자 이에 분노한 기 황후(奇皇后)가 최유(崔濡)를 시켜 요양성(遼陽省)의 군사를 이끌고 고려를 침공케 하니 태조가 출정하여 달천(獐川)에서 원군(元軍)을 대파하였다. 이때 여진 땅에서 출생하고 성장한 태조의 고종형제 삼선과 삼개가 변란을 틈타 여진인들을 이끌고 침략하여 함흥을 함락시키자, 방금 싸움을 끝낸 태조가 곧바로 군사를 몰아 삼선과 삼개를 여진 땅으로 영영 내쫓았다는 사적이다. 이는 태조가 치룬 여러 전투들 가운데에서도 두 차례에 걸친 승전인 데다가 서북면(西北面)과 동북면(東北面)으로 쉴 틈 없이 군사를 운용한 데 따른 전과이기도 해서 그 의미가 각별하게 여겨져 왔다.³⁶⁾

작품에서는 ‘철령이 높도다[鐵嶺高]’라는 경탄이 반복되는데, 제목이기도 한 이 말은 작품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그 함의가 조금씩 다르게 나타난다. 초두에서는 표면적인 뜻 그대로 철령의 지형이 험준하다는 의미로 써서 칼날에 비할 만큼 날카롭고 웅장한 산세가 금강산에까지 이어진다는 점을 경이롭게 묘사하였다.³⁷⁾ 이어서, 위에 인용한 두 번째 경탄에서부터는 화제를 바꾸어 것처럼 외부와 단절되어 고립된 곳에 오랫동안 머물러 있던 여진인들의 완악한 습속을 조명하였다. 살육과 약탈을 일삼았던 여진인들의 흉포한 행태와 그들에게 끊임없이 피해를 당했던 생민들의 간난을 자세히 제시하였다.

‘철령고’를 두 번 반복하는 지점에서 시상은 또 한 번 전환된다. 이때의 ‘높다’는 태조의 뛰어난 자질과 공업을 칭송하기 위한 표현이다. 여진인들의 오랜

35) 『태조실록』 권1, 「총서」; 『용비어천가』 제38장. “四征無敵 呼사 오사사 사르시릴씩 東인 니 거시든 西夷 브라스불니 / 用兵如神 呼사 가사사 이기시릴씩 西에 오나시든 東鄙 브라스불니” [『용비어천가』 권5, 44b~46b쪽.]

36) 『용비어천가』 제38장의 노랫말에서 태조가 서쪽에 오면 동쪽 변방이 바란다고 표현한 이 유도 여기에 있다. 두 전장을 쉴 새 없이 누벼야 할 만큼 고려를 구할 인물이 태조 이외에는 달리 없었다는 의미를 부각하려 했던 것이다.

37) 홍양호, <鐵嶺高>, 「삭방풍요」, 『이계집』 권5. “鐵嶺高, 坤軸牢, 岡巒蔽嶺而嶄巖, 鋒角轟鋌刀, 康回頭觸不周, 背陰營柱巨擎, 元氣蛟螭西南走, 鑄金剛兮鍾神臯”

횡포가 태조가 출현함으로써 일거에 척결되었다는 찬탄이 시상의 핵심을 이룬다. 우선 태조가 철령 산하의 우뚝한 기운을 받아 북방에서 태어났다는 출신 배경을 말하면서 왕자(王者)의 자질을 언급하였고, 일찍이 태조와 최영(崔瑩)이 화답하였다는 시구에서 ‘세 자의 검[三尺劍]’과 ‘한 가닥 채찍[一條鞭]’을 인용하여 젊어서부터 큰 뜻을 품었던 태조의 기개를 상기시켰다.³⁸⁾ 삼선과 삼개가 이끄는 여진인들을 물리친 태조의 공훈이 삭방에서 이미 오래전부터 예비되고 있었다는 취지이다.

작품 후반부에서는 오랑캐의 기풍을 일소한 후 철령 일대에 깃든 교화를 감격스럽게 서술하였다. 이는, 앞서 살핀 <알동가>·<격구정> 등의 작품에서 홍양호가 두만강 이북의 땅을 상실한 데 따른 한탄을 표출하였던 것과 사뭇 대조된다. 태조가 승전한 이래 400여 년이 지난 홍양호 자신의 시대까지도 그 땅을 여전히 굳건하게 지키고 있다는 점이 그에게는 감개무량하게 느껴졌던 것이다. 철령 일원에서 대대손손 평화롭고 풍족하게 생업을 이어가는 백성의 삶을 직접 목도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를 가능케 한 태조의 공덕을 다시금 강조하기 위해 홍양호는 가동(街童)들이 <용비어천가>를 부르는 광경을 상정하였다. 실제로 <용비어천가>의 찬자인 권제(權躋)·정인지(鄭麟趾)·안지(安止) 등은 이 노래를 고을에서도 쓰고 나라에서도 써서 영원히 잊지 않기를 당부한 바 있다.³⁹⁾ 그러나 홍양호의 시대에 <용비어천가>가 북관 지역에서 아이들에게까지 회자되었다고 보기는 정황상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⁴⁰⁾ 여기에서는 <용비어천가>를 실제로 읊조리거나 부른다는 뜻이기보다는 철령의 온

38) 成倪, 『慵齋叢話』 권3. “太祖爲侍中, 嘗占聯云: ‘三尺劍頭安社稷’ 一時文士皆未對, 公遽曰: ‘一條鞭未定乾坤’ 人皆嘆服”

39) 『進龍飛御天歌箋』, 『용비어천가』, 3b~4a쪽. “儻加省納, 遂許頒行. 傳諸子傳諸孫知大業之不易, 用之鄉用之國至永世而難忘.”

40) 조선초기에는 <용비어천가>가 함흥에서 종종 연행된 바 있으며, 17세기 초에 함경도 관찰사로 부임했던 유천(柳川) 한준겸(韓浚謙, 1557~1627)은 『용비어천가』를 초략 이해하고 간행하여 관내에 유포하기도 하였다. [김승우, 앞의 책(2012), 330~338·386~394쪽.] 그러나 홍양호가 북관에 머물렀던 18세기 후반에는 <용비어천가>가 북관에서 연행 또는 간행된 흔적을 찾기가 어렵다.

백성이 태조에 대한 칭송을 길이 이어간다는 정도의 의미로 해석된다. 태조의 유업이 수백년에 걸쳐 면면히 전해지는 광경을, 거리에서 아이들조차도 <용비어천가>를 부른다는 말로써 감동적으로 표현해 내고자 하였던 것이다.

掛弓松

乃在咸州之本宮
云是聖祖手所植
尙餘三株後庭中
亭亭偃蓋蔭十畝

上有光怪干碧穹
(…)

往歲島夷犯大邦
興王舊壤烟塵濛
敢以斧斤入宮樹
龍鱗一片鮮血紅
忽然驚風掣地起
若有轟雷殷半空
羣盜相顧盡獸駭
不覺叉手仍鞠躬
樹木尙爲神靈護
枝葉皆與造化通
從此驕虜折凶圖
咸識聖人樹立雄
蒼髯屹然四百年
鐵山扶桑相始終
嗚呼欲知當日櫛沐開創功
須看金櫃絳紗籠
中有十三羽箭一角弓⁴¹⁾

괘궁송(掛弓松)은

바로 함주(咸州)의 본궁에 있네.
성조(聖祖)께서 손수 심으신 것이라 하는데
아직도 세 그루가 뒤뜰에 남아 있네.
우뚝하니 수레 덮개 같은 가지 열 이랑에 그늘을
드리우니

위로 신기한 광채가 창공으로 뻗쳐 나가네.
(…)

지난날 섬 오랑캐가 큰 나라를 범하여
왕업 일어난 옛 땅에 먼지 자욱해졌네.
감히 도끼 들고 들어와 본궁 소나무 베니
용 비늘 한 조각에 선혈이 붙었어라.
홀연 거센 바람이 땅을 쓸며 일어나니
마치 천둥소리처럼 허공에 작렬하였네.
도적 떼 서로 쳐다보며 죄다 짐승처럼 혼비백산
저도 모르게 손 모으고서 허리를 굽혔어라.
나무를 여전히 신령이 보호하니
가지와 잎마다 천지조화와 통하였네.
이로부터 무례한 오랑캐들 흉악한 음모 꺾이니
성인의 수립(樹立)하심이 웅혼함을 모두 알리라.
푸른 솔 우뚝하게 사백 년을 지내오니
철산(鐵山) 부상(扶桑)과 함께 영원하리로다.
아아! 당시 즐목풍우(櫛沐風雨)하며 창업하신 공
알려거든
금궤에 붉은 비단으로 감싼
열세 개의 깃 화살과 하나의 각궁(角弓)을 볼지니.

한편, 또 하나 주목되는 부류는 기존의 고적에 후대의 전승이 덧붙여진 사례들이다. 북방의 고적은 홍양호의 시대를 기준으로 약 4,5백 년 전의 것들이다. 이처럼 오랜 시간을 거치는 동안 고적에는 왕왕 새로운 이적(異蹟)이 나타나면서 그 의미가 재차 부각되기도 하였다.⁴²⁾ 먼저 괘궁송(掛弓松)을 다룬 위 작품이 주목된다. 함흥 본궁에 있는 세 그루의 소나무가 ‘괘궁송’이라 일컬어지는 데, 태조가 잠저 시에 활 쏘는 연습을 하다가 소나무에 활을 걸어 두었다는 것이 이 고적의 유래이다. 궁술은 태조의 여러 무인적 자질 가운데에서도 핵심을 이루므로 그가 궁술을 연마했던 곳의 경물이 고적으로 추앙될 수 있는 여지는 충분하다. 그러나 괘궁송은 관련 기록이 불분명한 데다가 특정한 역사적 사건과 연계된 고적도 아니어서 그 내력을 입증하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그러한 사정 때문인지 작품에서는 괘궁과 관련된 사적은 별반 다루지 않았고 소나무를 태조가 직접 심었다는 것도 ‘운(云)’이라 하여 전언임을 전제로 언급하였다. 대신 태조의 빼어난 궁술에 힘입어 남북의 외적을 물리칠 수 있었다는 칭송의 뜻을 전하는 데 주력하면서 소나무의 장대한 모습을 감각적으로 묘사하였다. 우뚝 솟아 치렁치렁하게 가지를 드리우고 있는 노송의 자태와 태조의 웅혼한 기품을 연계 지었던 것이다.

보다 주목되는 내용은 작품의 중반 이후에 제시된 임진왜란(壬辰倭亂) 때의 이적이다. 왜란 당시 함경도에는 가토 기요마사[加藤清正]의 부대가 진격해 들어와 일대를 유린했고 이곳에서 군사를 모으던 임해군(臨海君)과 순화군(順和君)이 가토에게 붙잡히는 일까지 벌어지게 된다. 후일 정문부(鄭文孚, 1565~1624)가 의병을 이끌고서 왜군을 토벌하여 부읍(部邑)을 수복하였으며, 홍양호는 이 북관대첩을 <임명대첩가>를 지어 송축한 바 있다.⁴³⁾ 비록 승전하기는

41) 홍양호, <掛弓松>, 『삭방풍요』, 『이계집』 권5.

42) 홍양호가 『홍양조승』 권1~3에 취합한 사적들 중에도 선조의 기록에서는 발견할 수 없는 전승이 여럿 포함되어 있거니와, 홍양호에 의해 새로 조사된 것뿐만 아니라 선조에는 크게 주목되지 않았다가 재평가 작업을 거쳐 새롭게 중시된 사례도 있다. [김승우, 앞의 책 (2012), 459쪽.]

43) 홍양호, <臨溟大捷歌>, 『삭방풍요』, 『이계집』 권5.

하였지만, 왜군의 침탈로 함경도는 큰 피해를 입었고 함흥 본궁 역시 불타 버렸으나 패궁송만은 보존될 수 있었던 내력을 작품에 반영한 것이다. 서에 따르면, 왜군이 본궁에 들어와 소나무 가지를 도끼로 자르자 선혈이 솟구치고 갑자기 돌풍이 불며 천둥까지 쳐서 혼비백산했다고 하였다.⁴⁴⁾ 선혈이 솟았다는 것은 패궁송이 태조의 분신과도 같은 역할을 하였다는 의미를 전달한다. 생전에 그러했던 것처럼 사후에도 국가를 보위하고 백성을 살리고자 했던 태조의 고귀한 뜻이 영험을 발휘했다는 취지가 이 화소에 담겨 있다.

한편, 홍양호는 함흥 지역의 이 같은 전승을 일부 확대하여 그 의미를 강조하기도 하였다. 본래는 왜군들이 패궁송의 이적에 놀라 달아나서 범접하지 못한 것으로만 되어 있으나, 작품에서는 왜군들이 이적을 보고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손을 모으고 예를 표하였다고 하였다. 또한 정문부의 의병이 왜군을 결정적으로 패퇴시켰던 전승의 단초가 바로 이 패궁송의 이적으로부터 나타나게 되었다고 하여 국태민안(國泰民安)에 매진했던 태조의 영속적 뜻을 부각하였다. 이처럼 패궁송이 다소 신비화된 유적이라면, 작품의 말미에 제시한 우진(羽箭)과 각궁(角弓)은 함흥 본궁에 전해지는 태조의 실제 유품이다. 자칫 허황되게 느껴질 수도 있는 패궁송의 설화를 태조의 실제적인 공덕과 연계 지음으로써 고적의 신빙성을 강화하고자 했던 홍양호의 의도가 간취된다.⁴⁵⁾

이렇듯 나무가 왕조 창업의 유물로 칭송되었던 사례는 목조 이안사의 전주(全州) 자만동(滋滿洞) 구거지(舊居址)에 있었다는 ‘장군수(將軍樹)’의 사례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조선후기 읍지(邑誌)에 따르면, 목조가 어린 시절 아이들과 놀이를 할 때 나무 밑에 단정하게 앉아 있으면 관청에서 조회를 하듯이 아이들이 절을 하였으며 정유재란(丁酉再亂) 이전까지도 부민들이 이 장군수를 소중히 보호해 왔다고 하였다.⁴⁶⁾ 장군수와 패궁송은 목조와 태조의 왕자적(王

44) 홍양호, <掛弓松>, 『삭방풍요』, 『이계집』 권5. “壬辰之亂, 倭賊斧斫一枝, 鮮血迸出, 風雷大作, 賊徒驚散, 不敢復近云.”

45) 함흥 본궁에 소장된 태조의 유물에 대해 홍양호는 기를 지어 자세히 서술한 바 있다. 홍양호, 『咸興本宮御物記』, 『이계집』 권13.

46) 김승우, 『목조(穆祖) 이안사(李安社) 관련 설화의 특징과 전승 양상』, 앞의 책(2020), 106~

者的)·무인적 자질을 상기시키는 유물로서 지역민들에게 큰 의미를 지니고 있었던 것이다. 땅속에 깊이 뿌리를 박고서 하늘로 곧게 뻗어나가는 나무의 고고한 자태가 창엽의 심원함과 창성함을 상징하는 적합한 소재가 될 수 있었기 때문이다.⁴⁷⁾ 더구나 정유재란 때 왜군에 의해 훼손된 장군수와 달리 패공송은 전란에도 굳건히 보존되었기에, 나무에 신령(神靈)이 깃들어 있다는 전승까지 덧붙여지면서 후인들에게 더욱 각별한 위상을 띠게 되었다.

青海之水何洋洋
眞人奮起日出方
雲從龍兮風從虎
維嶽之神降大荒
渭川占匪熊
有如太公逢周王
桃園結大義
又似劉皇得關張
(…)

逃禪頗似李鄴侯

辟穀還如張子房
紫語聯翩來北闕
素履安閑守東岡
身與名俱完
百世流芬芳
不用丘隴象祈連
應有精靈鎮封疆
崇禎丙子秋八月
寧古可汗始強梁

청해(青海)의 물은 어찌 넓고 넓은가
해 뜨는 곳에서 진인(眞人)이 분연히 일어났네.
구름은 용을 따르고 바람은 호랑이를 따르니
산악의 신령이 크게 황량한 곳에 내려왔네.
위수(渭水) 갈 때 곰 아님을 점쳤나니
태공(太公)이 주(周) 나라 왕을 만난 것과 같도다.
도원(桃園)에서 대의를 결의했나니
또한 유비가 관우·장비를 얻음과 같도다.

(…)

불문(佛門)에 자취 감춘은 이업후(李鄴侯)와 자못
비슷하고

벽곡(辟穀) 함은 장자방(張子房)과도 같아라
대궐에서 임금 조서 연이어 날아드나
편안히 본분 지키며 동강(東岡)을 지켰네.
몸과 이름을 모두 완전히 하였으니
백세토록 꽃다운 향기 전해지도다.
기련(祈連)을 본떠서 무덤 만들지 않았으며
영령(英靈)께서는 응당 이 강토 지키시네.
송정 병자년 가을 팔월
영고(寧古)의 가한(可汗) 비로소 난폭해졌네.

116쪽 참조.

47) 세계 여러 지역의 '왕조 설화'에서 나무는 왕위 세습, 왕업의 영속, 왕업의 원천 등의 상징으로 폭넓게 활용되어 왔다. [Peter H. Lee, 앞의 책, 251~253쪽 참조.]

無端雷雨起荒阡	불현듯 뇌우가 황천(荒阡)에서 일어나
大石自開浮圖藏	큰 돌이 절로 열려 부도에 감춰던 것 드러났네.
中有金來二字書	그 가운데 ‘금래(金來)’라는 두 글자 보이니
點畫分明墨色光	점획이 분명하고 검은 색채 빛났네.
非人非鬼誰能測	사람도 아니고 귀신도 아니니 누가 헤아릴 수 있 으랴
觀者相傳皆驚惶	본 사람들 서로 전하며 모두 놀라고 두려워했네.
果然是歲冬	과연 이해 겨울에
金人來東搶	금인(金人)들이 우리나라 침략하였네.
公死於今二百年	공이 돌아가신 지 이백 년이 지났건만
公靈來告何其詳	공의 영령 와서 고해주심 어찌 그리 자세했던고.
山河壯氣貫日忠	산하 같은 장쾌한 기상과 해를 뚫는 충정은
不以生死而存亡	살아서나 죽어서나 한결같도다.
別鴈峰下良家社	별안봉(別鴈峰) 아래 양가사(良家社)
遺像儼然掛高堂 ⁴⁸⁾	영정(影幀)이 엄연하게 높은 당에 걸려 있네.
(…)	(…)

후대의 이적과 관계된 또 다른 유적으로 청해사(靑海祠)가 있다. 청해사는 여타의 고적과는 대별되는 특징이 있는데, 홍양호가 다룬 북방의 고적은 대개 사조와 태조의 행적이 깃든 곳이지만, 청해사는 태조나 그 선조가 아닌, 태조의 의제(義弟)이자 편장(偏將)인 청해백(靑海伯) 이지란(李之蘭, 1331~1402)에 관한 것이다. 이지란은 본성(本姓)이 통[佟]으로 여진족 추장이었으나, 일찍이 무리를 이끌고 태조에게 귀부하여 남북을 오가며 다수의 전투를 치루었던 태조의 핵심적 조력자였기에 창업 후 개국공신에 봉해지고 청해를 본관으로 하는 이씨 성을 하사받기도 하였다.

홍양호는 이지란의 생애와 활동에 대해 큰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무비(武備)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삼국시대 이래 명장들의 활동을 시대별로 정리한 『해동명장전(海東名將傳)』을 집필하였거니와, 조선시대 명장의 제일

48) 홍양호, <靑海祠>, 『삭방풍요』, 『이계집』 권5.

앞머리에 게재한 인물이 바로 이지란이었던 것이다. 물론 이지란을 완전히 세롭게 조명하기보다는 대개 『용비어천가』 등 종래의 기록들 가운데 이지란이 포함된 대목을 발췌하여 조합하기는 하였지만, 앞뒤 부분에는 홍양호가 새로 발견한 일화들이 일부 포함되어 있기도 하다.⁴⁹⁾

그러한 『해동명장진』의 내용이 <청해사>에도 발견된다. 앞부분에서는 이지란의 빼어난 자질을 신인에 비기면서 추앙하였고 그가 태조를 만나게 된 상황이 이미 예정되어 있었다고 서술하였다. 『해동명장진』에서와 같은 자세한 서술은 나타나지 않지만, 문왕(文王)이 점을 쳐서 태공(太公)을 만나게 되었다는 고사를 동원함으로써 두 사람의 만남이 운명에 의한 것임을 강조하였다. 한편 태조와 이지란은 군신 관계이자 의형제 관계이기도 한데, 홍양호가 유비와 관우(關羽)·장비(張飛)의 도원결의(桃園結義)를 거론한 것은 이 때문이다.

실상 태조를 도와 내우외환을 막고 창업에 기여한 활약상이 이지란의 생애를 다루는 데 있어서 중심을 이루어야 할 것이지만, <청해사>에서는 그 구체적인 내역을 다루는 대신 만년과 사후의 일을 보다 비중 있게 거론하였다. 태조가 정종(定宗)에게 양위하고 물러나자 이지란 역시 본향인 청해로 돌아간 거하며 불도를 닦으면서 생애에 저질렀던 수많은 살상을 뉘우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바로 그 점에 홍양호는 찬탄하였다. 최고의 공업을 이루고도 만년에 스스로 물러나 깨끗하게 생을 마쳤던 이필(李泌)·장량(張良) 등 역대의 인물들과 견주면서 “몸과 명예를 모두 완전하게 하였다[身與名俱完]”라고 이지란의 생애를 칭송하였던 것이다. 묘소도 없이 다만 부도와 사당만이 남아 있을 뿐이지만, 이지란의 고귀한 뜻은 자신의 시대에도 면면히 전해진다고 느껴졌기 때문이다.

49) 이지란이 계명성(啓明星)의 기운을 타고났다는 출생 관련 일화, 어려서부터 용맹하고 무예에 능했다는 일화, 태조의 서모(庶母)인 의비(懿妃) 최씨의 꿈에 한 노인이 나타나 태조와 이성계의 만남을 예고했다는 일화 등이 앞부분에서 발견된다. 또한 뒷부분에는 이지란이 정도전의 최후를 예견했다는 일화, 만년에 관직을 버리고 청해에 은거한 일화, 그의 부도(浮圖)가 깨지며 청의 침공을 경고했다는 일화 등이 포함되었다. [홍양호, 『해동명장진』 권4, 13a~16b쪽.]

그러한 감회는 이적을 다룬 후반부에서 더욱 강화된다. 만년을 조용히 보내고 죽어서도 별반 자취를 남기지 않았던 이지란이 사후 200여 년이 지난 병자년에서야 갑자기 이적을 나타냈던 일을 서술하였다. 갑자기 뇌우가 일어 부도가 깨지며 그 속에서 ‘금래(金來)’라는 두 글자가 드러났다는 것인데, 이는 금나라, 즉 청의 군대가 곧 몰려오리라는 경고였지만 당시에는 누구도 그 의미를 알지 못했다고 하였다. 이러한 이지란의 간곡한 경고에도 방비를 게을리하여 결국 그해 겨울에 크나큰 치욕을 당할 수밖에 없기는 하였으나, 죽어서도 나라를 걱정하며 이적으로써 경고를 전한 이지란의 충심은 길이 칭송할 만하기에 홍양호는 사당에 걸린 그의 초상을 보면서 불후한 위풍과 기상을 상기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흠모의 정은 홍양호가 평소부터 품어 왔던 것이었다.⁵⁰⁾ 그는 삼국과 고려에 비해 조선조에서는 문약(文弱)이 심해지고 무를 천시하는 풍조가 편만해진 점을 크게 우려하여 『해동명장전』을 엮는다고 책의 서문에 밝힌 바 있는데,⁵¹⁾ 평생 무인의 길을 걸으며 국가와 백성을 보위하였음에도 부귀를 탐하지 않고 청빈하게 생을 마쳤으며, 사후에도 나라를 걱정하여 환란을 예고해 주는 충심을 발했던 이지란은 홍양호에게 여러 측면에서 사표로 삼을 만한 인물이었던 것이다. 홍양호가 태조나 그 직계의 고적이 아닌 <청해사>에 착목한 이유도 이지란에 대한 이러한 존숭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다.⁵²⁾

50) 위 작품의 생략한 부분에서 홍양호는 평생 이지란을 공경하여 그의 마부라도 되기를 원하였다고 직접 표현하였다: “眸如明星兩頰紅, 疎髯颯颯神揚揚, 平生景慕願執鞭, 今日瞻依如拜床。” [홍양호, <靑海祠>, 「삭방풍요」, 『이계집』 권5.]

51) 홍양호, 「서」, 『해동명장전』, “(…) 職由於文治勝而武力不競, 浸浸然委靡脆弱, 莫之振矣. 及至喪亂既平, 恬然若無事, 寧不哀痛, 余爲是懼, 乃聚東方名將上自羅麗, 下及本國, 以立列傳, 將以援古而警今焉. 使夫國中士大夫, 咸知文武本無二致, 而安危注意互相輕重也.”

52) 이상 태조의 고적을 다룬 홍양호의 특징적 방식에 대한 정리는 본고의 결론에서 수행하였다.

4. 결론

이상에서 이제 홍양호가 조선왕조 선조들의 북방 고적을 직접 둘러보고서 지은 작품들을 살피고 조선초기의 시각과 견주어 그 특징을 논의하였다.

추존 사조와 관련된 고적을 다루는 홍양호의 방식에서는 몇 가지 중요한 경향이 발견된다. 우선, 자신의 관점에 따라 사조의 위상을 선초와는 다른 비중으로 조정하였다는 점이다. 가령 알동과 적지의 고적을 다루면서 그는 익조의 역할을 크게 부각함으로써 익조를 왕조 창업의 핵심적 기반을 닦은 인물로 추앙하였다. 또한 함흥 본궁은 본래 도조 이래의 선왕들이 살던 집터에 지은 별궁이지만 그중에서도 유독 환조를 특화하여 고적과의 관련성을 드러내기도 하였다. 둘째로 고적의 현재적 의미에 주목하였다는 점이다. 홍양호는 고적을 4, 5백년 전 과거의 유산으로만 묶어 두지 않고 자신의 시대를 기준으로 그 의미를 상기하였다. 두만강 너머에 있는 알동 유적이 청의 땅이 되어 이제는 그저 바라만 볼 수밖에 없게 된 현실에 분노와 비애를 표출한 것이나, 익조가 알동을 떠나 정착했던 적도를 단순한 피난처가 아닌 천혜의 길지라고 규정하여 선초와는 다른 관점을 보였던 것이 여기에 해당하는 사례이다. 셋째로, 자칫 허황되게 여겨질 수도 있는 이적이거나 신이한 체험을 적극적으로 해석한 점이다. 익조가 적도로 피난할 때 바다가 갈라져 길이 생겼다는 이야기는 선초부터 언급되었던 이적이지만 홍양호는 여러 심상과 상상을 동원하여 그 광경을 한층 장엄하게 묘사하였으며, 환조와 임영대군을 잇달아 꿈에서 만났던 개인적 체험을 작품화하면서 북방에 남겨진 왕실 선조의 사적을 탐문하리라는 사명을 되새기기도 하였다.

한편, 태조의 고적을 다룬 작품들에서도 선초와는 변별되는 특징이 여럿 발견된다. 첫째로 문무를 겸비한 영웅으로서 태조의 위상을 규정하려 한 의도가 간취된다. 태조의 무인적 면모는 뚜렷한 반면 학문이나 유학적 식견에 관한 사적은 매우 드문 것이 사실인데, 홍양호는 태조가 소싯적 독서를 했다는 움집

터와 독서당 고적을 특화하여 태조가 지닌 문사적 자질을 부각함으로써 그를 실질적 의미의 ‘문화적 영웅’ 내지 ‘도덕적 거인’으로 묘사하고자 하였다. 둘째로 태조의 소소한 능력까지도 역사적인 맥락으로 끌어 와 연계 지었다. 예컨대 선초에는 태조의 격구 실력을 그 자체로 다루었던 데 비해서 홍양호는 격구 공과 채를 각각 여말의 급박한 정세와 이를 헤쳐 나가는 태조의 역량에 비유하였다. 격구 채로 호쾌하게 공을 때리는 모습을 그리면서 국난을 연이어 극복해낸 태조의 실제적 업적을 칭송하였던 것이다. 셋째로 태조의 공덕이 홍양호 당대에까지 이어진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유년기부터 독서에 열중했던 태조의 문사적 기풍이 면면히 이어져 명이 망한 후에도 문명을 보존할 수 있었다고 의미를 부여하거나, 태조가 삼선·삼개의 난을 평정하고서 수복한 철령 일대에 백성들이 평화롭게 대를 이어 생업에 종사하는 모습을 감격스럽게 서술한 사례가 그러하다. 넷째로 앞서 사조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태조의 고적을 다룰 때에도 이적을 중시하였다. 특히 후대의 전란과 관련된 새로운 일화에 주목하였는데, 가령 태조가 활을 걸어 두었다는 패공송을 임진왜란 때 왜군이 훼손하려 하자 선혈이 솟구치고 돌풍과 천둥이 일었다는 일화, 태조의 편장이자 의제인 이지란의 부도가 병자년 가을에 깨지면서 청이 곧 침범하리라는 경고를 진하였다는 일화를 비중 있게 형상화하였다.

왕조 창업의 역사를 수백 년이 지난 시점에서 다시금 조명하려 했던 홍양호의 이 같은 의도는 실상 조선후기의 다른 문인들에게서도 더러 발견된다. 여러 인사들이 영사악부(詠史樂府)를 지어 우리 역사 일반을 다루는 과정에서 여말선초의 각종 사건을 나름의 관점으로 시화한 바 있다.⁵³⁾ 이러한 움직임은 소

53) 김영숙, 『한국영사악부연구』, 경산대 출판부, 1998, 473~580쪽; 백원철, 「만성 박치복의 「대동속악부」 연구」, 『인문학논총』 4집, 국립 7개 대학 공동논문집 간행위원회, 2004, 23~53쪽; 김영숙, 「박치복의 「대동속악부」에 나타난 악부시적 성격과 역사 의식」, 『남명학연구』 23집, 경상대 경남문화연구원, 2007, 185~217쪽; 이국진, 「이학규 한시의 표현기법과 미적 특질 연구」, 고려대 박사학위논문, 2011, 148~162쪽; 강재현, 「이유원 「해동악부」의 실상과 창작 방법 고찰」, 『어문학』 115집, 한국어문학회, 2012, 167~193쪽; 석진주, 「전고 사용을 통해 본 성호 가문 『해동악부』의 3인 3색」, 『동양한문학회』 42집, 동양한문학회, 2015, 161~195쪽; 김승우, 「조선 후기 악부(樂府)에 표상된 왕조 창업의 내력: 선초(鮮初) 악장(樂章)과

중화 의식이 대두하며 우리의 역사와 강역에 대한 관심이 전반적으로 높아졌던 조선후기의 경향과 잇닿아 있다. 창업사에 대한 정리와 해석은 이미 조선초기에 일단락되어 『용비어천가』와 같은 문건으로 공식화되었으나, 그간 새롭게 나타난 전승이나 기존 사건에 대한 상이한 해석이 도입되면서 창업의 내력도 또 다른 부면으로 환기되기도 하였던 것이다.

물론, 그러한 작업을 수행했던 인물들 가운데 홍양호가 가장 부각되는 것은 물론이다. 그는 경흥부사로 좌천되어 있던 동안 실의에 빠지지 않고 북관에 전하는 선왕들에 관한 이야기와 그들의 활동이 깃든 고적을 직접 채록하고 조사했던 열의를 지니고 있었으며, 그 결과를 「삭방풍요」나 『홍왕조승』과 같은 작품 및 저술로 집성해 내었기 때문이다. 그러한 측면에서 홍양호는 18세기의 사상사적·학술사적 경향을 적실하게 보여 주는 문인이라 할 수 있다. 더불어, 홍양호의 이 같은 면모가 그의 손자인 홍경모에게서도 발견된다는 점은 흥미롭다. 홍경모는 북방의 지리적 경계에 대한 고증을 깊이 있게 수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조선초기의 악장을 시대의 변화에 맞게 개작하는 시도를 한 바도 있다.⁵⁴⁾ 여러 측면에서 조부가 수행한 작업과도 연계되는 측면을 보이기에 양자를 포괄적인 견지에서 조망해 보아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에 대한 탐색은 후속 과제로 남긴다.

의 차이를 중심으로」, 『고전과 해석』 35집, 고전문학한문학회, 2021, 37~84쪽 등.

54) 김승우, 「관암(冠巖) 홍경모(洪敬謨)의 연향악장 개편 양상과 그 의의」, 『조선시대 시가의 현상과 변모』, 보고서, 2017, 435~471쪽.

참고문헌

1. 자료

- 『용비어천가』. 京城帝國大學 法文學部 편, 『龍飛御天歌』 상·하, 京城帝國大學 法文學部, 1938.
- 『태조실록』; 『세종실록』. 「조선시대 사료: 조선왕조실록」,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2022. 11. 29. <<http://sillok.history.go.kr/main/main.do>>.
- 성현, 『용재총화』 권3. 민족문화추진위원회 편역, 『(국역) 대동야승』 1, 민족문화추진위원회, 1971.
- 정도전, 『삼봉집』 권2. 『한국문집총간』 5, 민족문화추진회, 1988.
- 홍경모, 『국조악가』 권4. 계명문화사 편, 『한문악장자료집』, 계명문화사, 1988.
- 홍양호, 『이계집』 권5·13·20. 『한국문집총간』 241, 민족문화추진회, 2000; 서한석·이승현 역, 『이계집』 2, 성균관대 출판부, 2020.
- _____, 『홍왕조승』 권1·4. 고려대학교 한적실 소장본. [치암 B3 A140]
- _____, 홍양호, 『해동명장전』 권4.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원문: 『해동명장전』”, 국립중앙도서관, 2022. 11. 29. <<https://viewer.nl.go.kr/main.wviewer>>

2. 단행본

- 김승우, 『옛 문학에서 발견한 전라북도 문화 풍경』, 태학사, 2020, 106~116·315쪽.
- _____, 『용비어천가의 성립과 수용』, 보고서, 2012, 330~338·386~394·448~459쪽.
- _____, 『조선시대 시가의 현상과 변모』, 보고서, 2017, 435~471쪽.
- 김영숙, 『한국영사악부연구』, 경산대 출판부, 1998, 473~580쪽.
- 진재교, 『이계 홍양호 문학 연구』, 성균관대 출판부, 1999.
- Lee, Peter H., 김성언 역, 『용비어천가의 비평적 해석』, 태학사, 1998, 33·251~253쪽.

3. 논문

- 강석화, 『이계 홍양호의 생애와 학문관』, 『진단학보』 100집, 진단학회, 2005, 301~326쪽.
(UCI: G704-000336.2005..100.003)
- 권정원, 『이계 홍양호 한시의 상하층문학 융합의 일단: 북새문학을 중심으로』, 『문

화와 융합』 39권 5호, 한국문화융합학회, 2017, 735~766쪽.

김동준, 「18세기 소론계 학통의 다각적 조명: 소론계 학자들의 자국어문 연구활
동과 양상」, 『민족문화사연구』 35집, 민족문화사학회, 2007, 8~39쪽.

(UCI: G704-000519.2007..35.001)

김문식, 「조선후기의 용비어천가 『홍왕조승』」, 『문헌과 해석』 19호, 문헌과 해석
사, 2002, 194~206쪽.

김승우, 「조선후기 악부(樂府)에 표상된 왕조 창업의 내력: 선초(鮮初) 악장(樂
章)과의 차이를 중심으로」, 『고전과 해석』 35집, 고전문학한문학회연구학
회, 2021, 37~84쪽.

김홍규, 「선초 악장의 천명론적 상상력과 정치의식」, 『한국시가연구』 7집, 한국
시가학회, 2000, 147쪽.

박수천, 「이계 홍양호의 문학과 시문학」, 『한국한시연구』 23집, 한국한시학회,
2015, 251~278쪽.

(UCI: G704-000619.2015..23.001)

여운필, 「적지(赤池)를 읊은 칠언고풍(七言古風) 3편의 형상성」, 『국문학연구』 27
집, 국문학회, 2013, 89~124쪽.

(UCI: G704-001747.2013..27.006)

정우봉, 「이계 홍양호 문학의 한 국면: ‘관물취상(觀物取象)’의 이해를 중심으로」,
『진단학보』 100집, 진단학회, 2005, 375~393쪽.

(UCI: G704-000336.2005..100.014)

최기숙, 「조선후기 사대부의 생활공간과 글쓰기 문화: 이계 홍양호의 기(記)를
중심으로」, 『고전문학연구』 33집, 한국고전문학회, 2008, 333~367쪽.

(UCI: G704-000294.2008..33.010)

| Abstract |

Hong Yangho's Perception and Poetic Expression of the Remains of the Joseon Dynasty in the Northern Region

Kim, Seung-u

Ewha Womans Univ. Prof.

Hong Yangho(洪良浩, 1724-1802), after being relegated to Gyeongheung (慶興), toured the remains of the ancestors of the Joseon Dynasty in Hamgyeong-do Province(咸境道) and wrote several Chinese poems. This study analyzed his works to derive a characteristic way in which he perceived the history of the founding of the Joseon Dynasty.

Several important trends are found in Hong Yangho's method of dealing with historical sites related to the four previous kings(四祖). First of all, according to his own point of view, he adjusted the status of the four kings to a different aspect from the viewpoint of the early Joseon Dynasty. For example, while dealing with the historical sites of Aldong(幹東) and Jeokji(赤池), he highly emphasized the role of King Ikjo(翼祖) and admired him as a person who laid the core foundation for the founding of the country. In addition, the palace in Hamheung(咸興) was originally a detached palace built on the site of the former kings since King Tojo(度祖), but among them, King Hwanjo(桓祖) was especially emphasized, revealing the relationship between him and Hamheung Palace. Second, Hong Yangho paid attention to the present meaning of the historic site. He did not recognized the ruins

only as a legacy of the past, but recalled their meaning based on his own era. For example, he expressed his anger and sorrow at the reality that Aldong ruins across the Tumen River(豆滿江) became the land of the Qing Dynasty and he had no choice but to look at it, and defined Jeokdo ruins where King Ikjo settled after leaving Aldong as an auspicious land, not just a refuge. Thirdly, miracles and miraculous experiences that could be considered absurd were actively interpreted. The story that the sea split and created a road when King Ikjo fled to Jeokdo had been mentioned since the early Joseon Dynasty, but Hong Yangho mobilized various images and imaginations to portray the scene even more solemnly. Also, he valued his personal experience of meeting King Hwanjo and Prince Imyeong(臨瀛大君) successively in dreams, and recalled his mission to investigate the historical remains of the ancestors of the royal family left in the north.

Even in the works dealing with the remains of King Taejo(太祖), several characteristics that are differentiated from those of the early Joseon period are found. First, he tried to define the status of King Taejo as a hero who had both literary and martial arts. While King Taejo's military appearance is clear, it is true that there are very few records that he had academic or Confucian insights. Hong Yangho tried to describe King Taejo as a 'cultural hero' or a 'moral giant' in a practical sense by highlighting his literary qualities by specializing in the site of a dug-out house and a reading hall where King Taejo was said to have read books in his childhood. Second, even the trivial abilities of King Taejo were brought into the historical context and linked. For example, in the early Joseon Dynasty, King Taejo's polo skills were dealt with by themselves, but Hong Yangho compared a polo ball and a club to the urgent situation of the late Goryeo Dynasty and King Taejo's ability to overcome it. He portrayed King Taejo striking the

ball vigorously with a polo stick and praised King Taejo's practical achievements in overcoming national crises one after another. Third, it was emphasized that King Taejo's merits continued to Hong Yangho's time. He gave meaning that Joseon was able to preserve its civilization even after the collapse of the Ming Dynasty as King Taejo's literary spirit, who had been absorbed in reading since childhood, continued unabated. In addition, he described with great emotion how the people peacefully continued their livelihood in the Cheolryeong(鐵嶺) area, which Taejo restored after suppressing the Samseon(三善) and Samgae(三介)'s rebellion. Fourth, Hong Yangho put importance on miracles when dealing with the remains of King Taejo, just as he dealt with the remains of the four previous kings. In particular, he paid attention to new anecdotes related to later wars. For example, he expressed the anecdote in a poem that blood flowed and gusts of wind and thunder erupted when the Japanese army tried to damage the pine tree that Taejo was said to have hung his bow on during the Japanese invasion of Korea in 1592. In addition, he also importantly dealt with the anecdote that the stupa of Lee Jiran(李之蘭), the deputy chief and sworn brother of King Taejo, was broken in the fall of 1636 and warned people that the Qing Dynasty would invade soon.

As such, Hong Yangho described the history of the founding of the dynasty in a way that was different from that of the early Joseon Dynasty in many aspects, and actively utilized the remains in the northern region for this purpose.

Key words : Hong Yangho(洪良浩), Igye(耳溪), the northern territories of Korea, Hamgyeong-do Province(咸鏡道), historic places, Sakbangpungyo(朔方風謠), Heungwangjoseung(興王肇乘), Akjang(樂章), Yongbieocheonga(龍飛御天歌)